

碩 士 學 位 論 文

미스 코리아 변천사로 본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1957년부터 ~ 2006년까지의 미스 코리아를 중심으로-

2007 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 티 藝 術 學 科

헤 어 디 자 인 專 攻

李 順 玉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光 淑

미스 코리아 변천사로 본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1957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스 코리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Miss Korea' s hair style and makeup
From 1957 to 2006 -

2007 年 6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李 順 玉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光 淑

미스 코리아 변천사로 본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 1957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스 코리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Miss Korea' s hair style and makeup
From 1957 to 2006 -

이 논문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6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學科

헤어디자인專攻

李 順 玉

李順玉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7 年 6 月

審査委員長 _____ ⑩

審 査 委 員 _____ ⑩

審 査 委 員 _____ ⑩

감사의 글

논문을 처음부터 완성하기까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숙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논문이라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문영숙 교수님, 권오혁 교수님께 감사 드리며, 한성대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신인숙 교수님을 비롯한 헤어 디자인과 학과장님 이하 전공 교수님께 그동안 잘 이끌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학문적 호기심의 갈증으로 항상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으나, 늦게 시작한 대학원 공부가 커다란 힘이 되고 초석이 되었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자신감을 심어준 예술대학원 헤어전공 동기들과 선, 후배님들의 우정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논문을 마치면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시부모님, 친정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과 나의 소중한 큰 딸 예인, 작은 딸 지인에게 이 작은 결실을 바칩니다.

2007년 이 순 옥

목 차

I.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4
II. 미의식의 이론적 배경	6
1. 미에 대한 개념	6
2. 미의식의 기원	10
1) 본태설	10
2) 장식설	11
3) 종교설	12
4) 신체보호설	12
5) 이성유인설	13
3. 한국인의 전통적인 미인형	15
4. 현대 한국인의 미인형	20
III.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28
1. 미스 코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8
1) 자격 기준	33
2) 심사 방법	34
3) 시대적 배경 및 대회 개요	34
2. 1959년 ~ 1979년	45
1) 유행경향 분석	45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50
3. 1980년 ~ 1989년	58
1) 유행경향 분석	58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59
4. 1990년 ~ 1999년	66

1) 유행경향 분석	66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68
5. 2000년 이후	74
1) 유행경향 분석	74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75
 IV. 결 론	85
1. 연구 결과 요약	85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	86
 참 고 문 헌	87
 ABSTRACT	91

표 목 차

<표 1> 국어사전에 나타난 미의 정의.....	9
<표 2> 미의식의 학설.....	14
<표 3> 현대 한국인 얼굴의 특징.....	26
<표 4> 얼굴의 비율.....	27
<표 5> 년대 별 미스 코리아 신체 변화.....	33
<표 6> 국제 미인대회 수상내역.....	39
<표 7> 1957년부터 2000년 이후 유행경향의 특성.....	82
<표 8> 1957년부터 2006년까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특성.....	84

그 립 목 차

<그림 1-1>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10
<그림 1-2> 상흔	11
<그림 1-3> 얼굴문신.....	11
<그림 1-4> 신체변형.....	11
<그림 1-5> 채색	11
<그림 1-6>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신	12
<그림 1-7>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눈 주위를 진흙으 로 칠한 모습	12
<그림 1-8> 벌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눈 화장	13
<그림 1-9>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화장.....	14
<그림 1-10> 현대 한국인은 1:1.5 의 얼굴비를 가진 긴 얼굴의 서구형 미인.....	21
<그림 1-11> 1:1.3 의 전통미인 복원상.....	21
<그림 1-12> 한국 여자 얼굴의 평균을 보여 주는 하회 각시 탈	21
<그림 1-13> 현대 한국인의 평균적인 머리 전체 세로 길이	22
<그림 1-14> 한국인 얼굴의 세로비.....	23
<그림 1-15> 이마의 가로 폭 120.66MM 전 두 최소 폭 95.50MM.....	23
<그림 1-16> 한국인의 눈과 미간.....	24
<그림 2-1> 96년 미스 아시아 태평양 수상	31
<그림 2-2> 92년 미스 인터내셔널대회 3위 민속의상	31
<그림 2-3> 88년 미스 준 유니버스 민속의상	31
<그림 2-4> 88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	31
<그림 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모습	32
<그림 2-6> 1959년 5월 시가행진.....	35
<그림 2-7> 군중으로 인한 혼잡	35
<그림 2-8> 지정 미용실제도 도입	36
<그림 2-9> 80년대 심사 모습	36
<그림 2-10> 양로원 방문	38
<그림 2-11> 심장병 돕기	38
<그림 2-12> 합숙 훈련.....	41

<그림 2-13> 새 왕관.....	42
<그림 2-14> 미스코리아 풍자화	42
<그림 2-15> 미스코리아 대회 반대시위	42
<그림 2-16> 연예계 등용문.....	43
<그림 2-17> 방송활동.....	43
<그림 2-18> 오드리 헵번의 픽시커트	46
<그림 2-19> 오드리 헵번의 픽시커트	46
<그림 2-20> 50년대 S자형 웨이브.....	46
<그림 2-21> 60년대 발표된 헤어스타일.....	46
<그림 2-22> 기하학적 커트.....	47
<그림 2-23> 컨케이브, 머쉬룸, 엠브렐러	47
<그림 2-24> 블로우 드라이.....	47
<그림 2-25> 세기 커트.....	47
<그림 2-26> 바람머리.....	47
<그림 2-27> 인위적인 메이크업	49
<그림 2-28> 아이 메이크업.....	49
<그림 2-29> 인조 속눈썹.....	49
<그림 2-30> 파란 계통의 아이새도우	49
<그림 2-31> 투명 피부표현.....	49
<그림 2-32> 입체화장.....	49
<그림 2-33> 57년 뱅 스타일.....	54
<그림 2-34> 58년 중단발	54
<그림 2-35> 59년 S자형 웨이브.....	54
<그림 2-36> 60년형 부광플립 스타일	54
<그림 2-37> 61년 듀오라인	54
<그림 2-38> 62년 듀오라인	54
<그림 2-39> 63년 탑 볼륨 업스타일	54
<그림 2-40> 64년 업스타일	54
<그림 2-41> 65년 가발사용 업스타일	54
<그림 2-42> 66년 방울머리	55
<그림 2-43> 67년 탑 사이드 볼륨 업스타일	55
<그림 2-44> 68년 포니테일	55

<그림 2-45> 69년 업스타일	55
<그림 2-46> 70년 볼륨강조	55
<그림 2-47> 71년 풍성한 볼륨 미디움	55
<그림 2-48> 72년 스트레이트-텔	55
<그림 2-49> 72년 가늘고 긴 눈썹	55
<그림 2-50> 73년 양감강조 업스타일	55
<그림 2-51> 74년 내추럴 웨이브	56
<그림 2-52> 75년 듀오라인	56
<그림 2-53> 76년 머쉬룸	56
<그림 2-54> 77년 진한 속눈썹	56
<그림 2-55> 77년 내추럴한 생머리	56
<그림 2-56> 78년 스트레이트	56
<그림 2-57> 79년 볼 터치	56
<그림 2-58> 79년 사자머리	56
<그림 2-59> 수영복 심사	56
<그림 2-60> 바디퍼머	57
<그림 2-61> 장신구	57
<그림 2-62> 망토를 두른 모습	57
<그림 3- 1 > 과장된 앞머리	58
<그림 3- 2 > 퍼머의 전성기	58
<그림 3- 3 > 동양적인 분위기 메이크업	59
<그림 3- 4 > 포인트 메이크업	59
<그림 3- 5 > 80년 올림머리	62
<그림 3- 6 > 81년 미디움 굵은 웨이브	62
<그림 3- 7 > 82년 미디움 스트레이트	62
<그림 3- 8 > 83년 블로우 드라이 컬	62
<그림 3- 9 > 84년 미디움 퍼머스타일	62
<그림 3-10> 85년 미디움 퍼머스타일	63
<그림 3-11> 86년 고전형 곡선 눈썹	63
<그림 3-12> 86년 내추럴 웨이브스타일	63
<그림 3-13> 87년 굵은 웨이브	63
<그림 3-14> 87년 아이 메이크업	63
<그림 3-15> 88년 볼륨 강조 퍼머스타일	63

<그림 3-16> 88년 긴 눈썹.....	63
<그림 3-17> 89년 사이드 볼륨 강조 퍼머스타일.....	64
<그림 3-18> 89년 곡선형의 입술 메이크업.....	64
<그림 3-19> 굵은 롱 레이어.....	64
<그림 3-20> 사자머리.....	64
<그림 3-21> 아이론 웨이브.....	65
<그림 3-22> s자형 웨이브.....	65
<그림 3-23> 바람머리.....	65
<그림 3-24> 세로롤 스타일.....	65
<그림 3-25> 수영복 퍼레이드.....	65
<그림 4-1> 부분 탈색 및 컬러링.....	67
<그림 4-2> 스트레이트 및 롤 스트레이트.....	67
<그림 4-3> 복고풍 메이크업.....	68
<그림 4-4> 90년 프린지 볼륨 강조 퍼머스타일.....	71
<그림 4-5> 90년 끝이 날렵한 퍼머스타일.....	71
<그림 4-6> 91년 탑 볼륨 강조 퍼머스타일.....	71
<그림 4-7> 92년 내추럴한 퍼머스타일.....	71
<그림 4-8> 92년 탑 사이드 강조 퍼머스타일.....	71
<그림 4-9> 92년 미디움 굵은 웨이브.....	71
<그림 4-10> 93년 내추럴 메이크업.....	71
<그림 4-11> 94년 탑 볼륨 업 스타일.....	71
<그림 4-12> 95년 굵은 웨이브.....	71
<그림 4-13> 95년 폼과돌.....	72
<그림 4-14> 96년 앞머리 뱅 장식.....	72
<그림 4-15> 97년 층이 많은 롱 레이어.....	72
<그림 4-16> 98년 둥글게 펼친 업 스타일.....	72
<그림 4-17> 99년 탑 강조 업 스타일.....	72
<그림 4-18> 99년 상하 긴 업 스타일.....	72
<그림 4-19> 스트레이트.....	72
<그림 4-20> 소라형 업 스타일.....	72
<그림 4-21> 움직임이 강한 웨이브.....	72
<그림 4-22> 투명피부.....	73
<그림 4-23> 볼륨강조 굵은 퍼머스타일.....	73

<그림 4-24> 리본장식.....	73
<그림 5- 1 > 텍스처퍼머	74
<그림 5- 2 > 올프컷	74
<그림 5- 3 > 헤어 케어.....	74
<그림 5- 4 > 눈썹화장	75
<그림 5- 5 > 피부 메이크업	75
<그림 5- 6 > 2000년 스트레이트.....	78
<그림 5- 7 > 2000년 투명 메이크업.....	78
<그림 5- 8 > 2000년 웨이브 포니테일.....	78
<그림 5- 9 > 2001년 탑 볼륨 강조 스트레이트.....	78
<그림 5-10> 2001년 쪽 머리 업 스타일.....	78
<그림 5-11> 2002년 탑 강조 업 스타일.....	78
<그림 5-12> 2003년 샹기스타일 웨이브.....	79
<그림 5-13> 2004년 디스커넥션 스타일.....	79
<그림 5-14> 2005년 볼륨 없는 업 스타일	79
<그림 5-15> 2003년 색조화장	79
<그림 5-16> 2004년 샹기컷 웨이브.....	79
<그림 5-17> 2005년 비대칭 굽은 웨이브	79
<그림 5-18> 2006년 뱅 업 스타일.....	80
<그림 5-19> 2006년 아이론 웨이브.....	80
<그림 5-20> 2000년 곡선형 눈썹	80
<그림 5-21> 2002년 업 스타일	80
<그림 5-22> 2003년 내추럴 메이크업	80
<그림 5-23> 2006년 사이드 볼륨 비대칭스타일.....	80
<그림 5-24> 2001년 탑 강조 업 스타일.....	80
<그림 5-25> 2006년 미디움 퍼머스타일	80
<그림 5-26> 2000년 반 머리 스트레이트	81
<그림 5-27> 2000년 볼륨 강조 업 스타일	81
<그림 5-28> 2006년 허리선 강조 수영복	81

I. 서 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태초부터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미적 본능으로 미를 추구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미용 문화의 기원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민족마다 풍습, 생활습관, 역사와 생활환경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 언제부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약 4 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보다도 이전의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¹

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특히 외형의 모습에서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얼굴의 특징은 얼굴의 입체적 형태를 결정하는 얼굴형과 입술, 코, 눈, 눈썹과 같은 세부요소로서 대칭과 밸런스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적인 얼굴 형태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² 다양한 변화와 함께 미적 감각은 사회, 경제, 문화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유행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단순히 형식적인 균형이나 비례로 얼굴모습의 미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체, 복식, 화장, 머리 양식 등 여러 요소들과의 조화가 이루어 질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미인형은 동그란 얼굴에 쌍꺼풀 없이 약간 위로 올라간 가름한 눈, 앵두 같이 작은 입술, 불그스름한 뺨, 부드러운 턱 선에 단정하고 윤기 나는 머리 결, 아담한 몸매, 목소리가 곱고 행동거지가 단정해야 하며, 인자한 품성과 다양한 자질까지 포함하고 있다. 물론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현대의 한국적인 미인형은 시원스럽게 생긴 큰 눈과 오뚝한 코, 섹시한 입술, 큰 키와 늘씬한 다리, 주먹만한 얼굴을 가진 서구적인 얼굴이 미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미를 대표하는 미스 코리아(Miss Korea)³ 수상자들

1 한 혜숙(2005), 『서양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1910년대-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 문화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p. 2.

2 안미영(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p. 1.

3 미스 코리아: 한국의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미인 선발대회에서 뽑힌 미인. 참가자

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변천사를 미용 문화사적으로 고찰하여, 당시의 유행 경향을 바탕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미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게 평가되었듯이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도 시대상을 반영하며 변화하여 왔다. 대중에게 많은 파급효과를 주었던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는 새롭게 조명 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용학적 측면에서 중심축이 되어 필수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의 미를 둘러싼 다양한 현상에 대해 성형학 분야, 심리학 분야, 의류학 분야, 메이크업 분야에서 미비하지만 개별적인 선행 연구가 있었다.

성형학 분야에서 조용진(1981)은 ‘한국미인의 생체계측학적 연구’⁴로 안면 미의식을 분석, 김홍규(2004)는 ‘한국 여성의 미인 얼굴과 평균 얼굴의 생체 계측학적 분석’⁵을 하였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박수진 외 6인(2001)이 ‘아름다운 얼굴의 감성적 구성 개념과 감성 어휘들의 모형을 제안’⁶하였고, 고충환(1997)은 ‘얼굴 유형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⁷가 있다. 의류학 분야에서도 문영보(1991)의 ‘의복 및 얼굴 변인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시지각적 효과 등 의상과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⁸ 했으며,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안미영(2006)이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⁹, 박연희(2002)는 ‘메이크업 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 연구’¹⁰ 미용학 분야에서도 채문희(2006)의 ‘얼굴유형과 머리모양의

격은 18~23세의 한국 미혼 여성이며, 공식적인 제1회 대회는 1957년부터 실시되었다. 한국일보(2006), 『50th 2006 Miss Korea Festival』, 2006 미스 코리아선발대회, p. 113.

4 조용진 외(1981), 『한국미인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성형학회지.

5 김홍규(2004), 『한국여성의 미인얼굴과 평균얼굴의 생체계측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6 박수진 외6(2001), 『한국인 20대 여성 얼굴의 수치 및 감성구조 분석』, 한국감성과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7 고충환(1997), 『얼굴 유형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문영보(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안미영(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박연희(2002), 『메이크업 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적 연구’¹¹ 등 이루어져 왔으나, 헤어 분야에서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모든 미용 행위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으로 완성된다. 이것의 기본 목적은 얼굴에 의하여 얼굴을 근거로 시작하며,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¹²

본 연구의 목적은 명실상부한 한국 여성의 미를 대표하는 미스 코리아선발대회¹³를 1957년부터 2006년까지의 변천사를 고찰하여,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미용 유행경향의 흐름을 이해하여,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밀접한 연관성을 조명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좁게는 미용 문화사적으로 미스 코리아를 각 시대별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넓게는 한국여성의 미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서구적 얼굴형태 속에서 한국적인 미인형도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또한 그와 함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미용예술분야에서 미의식 표현의 기초자료로 토대가 되어 차후 다양한 접목을 통하여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데 발판이 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1채문희(2006), 『얼굴유형과 머리모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적 연구』, 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채문희, 상계논문, p. 1.

13미스 코리아선발대회: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마당으로 시청률은 50~60%에 육박했고, 지금은 기록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성대한 카 퍼레이드 행사도 벌어졌다. 한국일보(2006), 전계서, p. 114.

2. 연구 방법 및 범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처음 개최하게 된 목적이 작가 김동환이 자신의 작품 “국경의 밤”을 홍보하기 위해 미인대회를 개최해 표지모델로 사용하였다는 의견과 한국전쟁 이후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국제미인대회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할 미의 사절을 뽑기 위함이라는 의견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의견을 목적으로 보았다. 개최 목적이 미스 유니버스 파견에 있었기 때문에 대회는 출발부터 미의 기준으로 서구적 개념이 많이 도입되었다. 즉, 눈도 크고 코도 오뎅하며 늘씬한 다리의 미인들이 선호되었으나, 실제로는 과도한 서구 스타일의 미인을 추구하기 보다는 복스러운 동양의 고전미를 풍기는 미인을 선발하였다.

연구 범위는 미스 코리아선발대회가 공식적인 미인대회로 인정받은 1957년부터 2006년까지로 선발대회에 뽑힌 수상자에 국한하였고, 시대별 유행 경향의 범위는 1950년대부터 2006년대까지로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분석할 때 유행 흐름의 객관적인 자료로 기준을 삼았다.

컬러 TV방송 이전과 이후로 유행 흐름의 변화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시대별 기준을 57년부터 80년대 이전,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논문 내용의 미스 코리아는 선발대회의 수상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통일하였고,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된 논문, 미스 코리아 관련서적, 미스 코리아 배출 경험에 있는 미용인의 인터뷰¹⁴를 추가하였으며 한국일보 외 각종 신문 기사,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홍보실자료, 인터넷검색(<http://misskorea.hankooki.com>)의 자료 사진, 등 공식적인 기사 내용으로 미스 코리아의 특징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을 살펴보았다.

1954년 6월 9일 창간한 국내언론사상 최초로 상업지를 표방한 대표적인 종합 일간지였던 한국일보는 1957년부터 현재까지 미스 코리아의 모든 관련사항을 공식적으로 기사화하였다.

14 정찬이 선생님은 1960년부터 2007년까지 약 45년 동안 미용예술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였고, 다수 미스 코리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기능대회수상 및 각종 미용예술대회 심사위원, 미용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셨다. 2006년 4월에는 업 스타일 책을 출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은 1975년부터 한국일보와 공동주최하여 지역 예선과 본선에 시상 품을 후원하고 후보자에게 화장을 해주는 등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예선에서 미스 ABC화장품을 선발하여 본선에 진출시켰고, 본선 선발대회를 지원하여 미스 아모레가 선발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과 의의 및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 언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으로 미의식 흐름을 이해하고자 미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고, 미의식의 기원을 몇 가지 학설로 파악하였으며, 한국인의 전통적인 미인형은 고전소설의 인용문을 참고로 살펴보고, 현대 한국인의 미인형은 조용진의 연구 자료로 고찰하였다.

III. 미스 코리아의 시대적 배경과 대회개요 및 선발대회의 참가자격 기준, 심사방법 등 미스 코리아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1957년부터 2006년까지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당시의 유행 경향과 함께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IV. 결론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가장 한국적인 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스 코리아의 시대적 의의와 근원에 관한 연구가 미용예술분야에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고찰은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의 제한 사항으로는 실제 원본이 아닌 사진자료와 인터넷검색을 통한 자료 사진은 색채와 형태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Ⅱ. 미의식의 이론적 배경

1. 미에 대한 개념

미의식은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미적 태도에 있어서의 의식 과정’을 가리키고 철학적 관점에서는 ‘미적 가치에 관한 직접적 체험’을 의미하거나 ‘미적인 것의 창조, 관조 등 미적 태도 일반에 관한 정신활동’ 등으로 정의된다.¹⁵

미(美)를 객관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 기원은 인류의 발생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15세기 이래로 많은 예술가들은 미의 이론문제를 탐구해 왔으며, 중세의 미의 개념은 천국에 있고 하느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미는 인간 세상에 있으며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다. ‘미 (Beauty)’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가시적(可視的)인 미를 위해서는 균제 (symmetria)¹⁶라는 용어가, 가청적(可聽的)인 미를 위해서는 조화 (harmonia)¹⁷라는 용어의 예를 들 수 있다.

B.C. 5세기 아테네의 소피스트(Sophist)¹⁸들은 원래의 미 개념을 좁혀서 미

15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2001), 『미용미학과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p. 11

16 균제(symmetria): 비트루비우스(기원전 1세기) 『건축서』, III, 1 작품자체의 각 구성 요소들에게 나오는 적절한 조화이며, 분리된 각 부분들이 전체적인 형태와 이루는 윤율적 대응관계이다. 그리스인들이 유사성이라고 부르던 비례에서 탄생했다. 움베르토 에코(2005), 『미의 역사』, 주식회사 열린책들, p. 75.

17 조화(harmonia): 필롤라오스(기원전 5세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들』, D44B6 자연과 조화에 관한 한 사물들은 그와 같다. 사물의 영원한 실체, 그리고 자연 그 자체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인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사물들, 유한하거나 무한한 사물들의 실체가 없다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는 사물들이 모두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제 원리들은 동일하지도, 종류가 같지도 않기 때문에 사물들이 우주 속에서 질서를 잡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사물들이 유사하고 동일한 형태였다면, 조화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이하고 다른 형태에 서로 다르게 정리된 요소들은, 그것들을 우주 속에서 결속시킬 수 있는 조화에 의해 완성되어야만 한다. 움베르토 에코, 전제서, p. 72.

18 소피스트 (Sophist): 기원전 5세기경, 주로 아테네의 자유민으로서 교양·학예, 특히 변론술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던 사람들. 이들이 변론을 위한 변론을 일삼은 데서, 본래 ‘현명한 사람, 지식인’이라는 뜻의 말이 『페변가』 따위로 변

를 “시각이나 청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¹⁹ 이라고 한정 지었다. 그후, 스토아학파에 의해서 보다 진전되었다. 스토아학파²⁰의 미 개념은 소피스트들의 정의만큼이나 그 범위가 좁은 뜻으로 적당한 비례와 매력적인 색채를 가진 것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물에 대한 시각적인 미로서 주로 스토아학파가 부분적으로 채택한 심미적 의미에서의 미 또는 시각으로 파악되는 사물에 한정되는 의미에서 형태와 색만이 아름다운 것으로 보았다.

아름다운 것으로 지칭되어온 심미적 미가 오늘날의 미학(美學)에서 가장 중요시 되었듯이, 심미적인 미에 대한 철학자들의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아름답다”라는 말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또는 “칭찬할만하다” 등을 의미했고, “선하다”는 것과는 극히 미묘하게 사소한 차이가 날 뿐이었다.

플라톤은 미 속에 “도덕적인 미”를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미적 특질로부터 조심스럽게 배제시키는 특징적 성격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미를 “선한 것이며 따라서 쾌적한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이러한 미의 개념은 모든 예술을 통합시키는 유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아름답다는 뜻의 한자는 ‘미(美)’이다. 이 자는 회의자²¹(會意字)로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羊+大”라는 것이요, 하나는 “羊+火”라는 것이다. 어째서 커다란 양이나 불 위에 올려놓은 양을 아름답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먹음직스럽기 때문이었다. 즉 맛이 좋은 것에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도출해 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양이 단지 먹음직스럽다는 점 말고도 희생정신을 뜻한다는 것이다. 옛날에 양은 희생 제물이었으므로 양이 크다는 것은 곧 희생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뜻한다. “옳을 의(義)자”를 보면 나[我] 위에 양을 얹어놓은 모양인데, 옳은 일을 하려면 자진하여 희생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만든 글자라는 것이다.

우리말의 “아름답다”에도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한 아름처럼 두 팔 가득 차는 풍부한 촉감에서 왔다”는 국문학자들의 주장과 “알음” 즉 알,

하게 되었다. <http://krdic.naver.com/detail.nhn?kind=korean&docid=22036700>

19 W.타타르키비츠(1990),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진사, p.149

20 스토아학파 (Stoicism): 기원전 3세기 초에 제논이 창시한 그리스 철학의 한 파. 윤리를 중심 과제로 하고 준엄한 도덕주의와 엄격한 의무의 준수를 주장함.
<http://kordic.empas.com/dicsearch/show.tsp?q=77407&f>

21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하고 그 뜻도 합성하여 만든 글자.

ex) ‘日’과 ‘月’을 합하여 “밝다”는 뜻의 “明”자를 만들.

지적인 것과 관련 있다는 미술사가(美術史家) 『고유섭』의 주장이 또 다른 하나이다. 동의어로 “예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훈민정음의 “어여쁘다”에서 온 것이고 “가련하다” “불쌍하다”라는 뜻이다. 일본어에서는 “위생적이다”라는 의미로 “우쓰쿠시이”(美しい)라는 말 외에 “키레이나”(きれいな)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널리 쓰인다.²²

아름답다는 말은 진(眞) 선(善) 성(聖)과 함께 인간이 추구하는 4대 가치의 하나로 인생의 중요한 한 면이면서 그 어원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중국에서는 미각적으로 좋은 것 또는 희생정신과 같이 도덕적인 것을 뜻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촉각적인 풍부함이나 지적인 것 또는 가련한 것을 뜻하고, 일본은 위생적인 것을 뜻해 이들 사이에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또한, 영어의 “beauty”에도 어원적 의미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좋다 [善]”는 뜻이요, 하나는 “당당하다”는 뜻이다.

동양에는 “퇴연약불승의자(退然若不勝衣者)”라는 말이 있다.²³ 우리나라에서 겸손한 사람의 거동을 일컬을 때 쓰던 표현으로, 이는 매우 숭상 받던 행동이었다. 이렇게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한 반면, 서양에서는 당당한 것이 아름다움이었다.

당당함의 어원을 살펴보면, 서양의 중세 봉건사회에서 농노의 아들들은 성안에서만 지내야 했는데 이것은 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성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람을 기르는 교육 기간이자 농노들을 인질로 삼는 의미가 있었고, 농노 입장에서는 보면 그 기회에 열심히 무술을 닦거나 학문을 하여 영주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 귀족으로 신분상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면서 별 탈 없이 봉건사회의 한제도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신분상 자신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소수 귀족과 이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의 전망은 당당한 그들의 풍모와 더불어 소속의 안도감을 갖게 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다. 그후 성안에 살고 있는 귀부인들과 공주까지 가세하여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미적 관점으로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것은 당시 서양에서 유용하고 좋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22 조용진(2001), 『우리 몸과 미술』, 사계절, pp. 193~194.

23 물러나가는 모양이 입고 있는 자기 옷의 무게도 이기지 못하는 듯하다는 뜻. 조용진, 상계서, p. 198.

※ 국어사전에 나타난 미의 정의

국어사전에 나타난 미의 정의를 살펴 본 결과, 미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로 감성과 이성의 조화, 통일에 대한 순수한 감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 처	정 의
국어 대사전 ²⁴	① 온갖 사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그 아름다움. ② 감성과 이성의 조화, 통일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것. ③ 평점의 하나, 우의아래, 양의 위.
표준국어 대사전 ²⁵	① 눈 따위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인간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아름다움. ② ‘아름다움’의 뜻을 나타내는 말. ③ 성적이나 등급을 ‘수,우,미,양,가’의 다섯 단계로 나눌 때의 셋째 단계. ④ 미국을 이르는 말. 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내적 쾌감을 주는 감성적인 대상
ㅎ·ㄴ+ 국어 대사전 ²⁶	① 아름다움. ② 감성과 이성의 조화를 통해 순수한 감동을 일으키는 것. ③ 학생 성적평가의 다섯 단계 가운데 셋째 단계.
밀레니엄 국어 대사전 ²⁷	① 눈으로 보았을 때의 아름다움. ②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조화, 통일에 대한 순수한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
동아 새국어 사전 ²⁸	① 아름다움. ② 철학에서, 감성과 이성의 조화, 통일에 의하여 순수한 감동을 일으키는 것.

<표 1> 국어사전에 나타난 미의 정의

24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민중 서림, p. 1373.

25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 두산동아, p. 2335.

26 높세울, 남영신 엮음(2003), 『ㅎ·ㄴ+국어대사전』, 성안당, p. 845.

27 국어국문학회(2004), 『밀레니엄국어대사전』, 민중서관, p. 953.

28 두산동아사서편집국(2004), 『동아새국어사전』, (주)두산동아, p. 878.

2. 미의식의 기원

미에 대한 의사표현은 태고(太古)로부터 인류문화가 진보(進步)됨에 따라 함께 발전을 거듭하여 인간의 미적 본능을 충족시켜 왔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 차이로 인류 미의식의 원류(原流)는 어디에 내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몇 가지 학설이 거의 정설로 되어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태설

식욕과 성욕이 자연적인 본능인 것처럼 아름다움을 가꾸고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태곳적부터 자신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추한 부분이나 일부의 약점을 고치거나 감추려고 노력해 온 본능이다.

미용의 생활 문화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출토된 인류 최초의 예술작품이라고 추정되는 빌렌도르프 여인의 나체 조상을 제시하였다. 이 여인상은 가슴이 풍만하고 허리가 잘록하며 둔부가 발달해 있는 모습인데 원시인들도 아름다운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아름다움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욕망이 타고난 본능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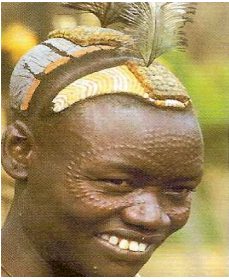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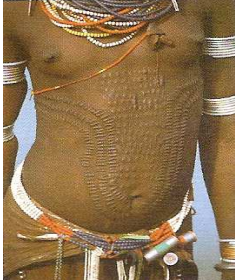


<그림 1-1>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출처: 『동서양 미용문화사』, p. 13

2) 장식설

남녀 구별이나 계급과 같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화장, 문신 등이 장식처럼 활용되다가 발전하여 아름다움을 가꾸는 수단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원시시대에는 신분, 계급, 종족,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피부나 얼굴에 그림을 그려 넣거나 문신을 새겼다. 문신이 계속 발전하면서 아름다움을 가꾸는 수단(手段)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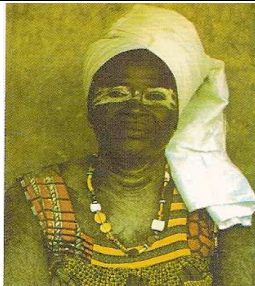
문신은 기원전 3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특정 종족 집단에 소속돼 있음을 표시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용맹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였으며 이러한 문신의 흔적은 1991년 알프스의 빙하 속에서 석기시대 사람에게서 확인되었다. 고대의 통치자, 용맹스런 무사 등 상류 사회인들이 요란하게 멋을 낸 것처럼 현대에 와서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요란한 치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대중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경외함을 갖기 위해 장식을 하였다는 학설이다.

		
<그림 1-2> 상흔		<그림 1-3> 얼굴문신
		
<그림 1-4> 신체변형		<그림 1-5> 채색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 9

3) 종교설

신체를 장식하는 데에도 종교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 신체의 안녕을 위한 주술적인 방법으로 고대인들은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향나무 즙을 몸에 바르고 재단에 나아가 향나무를 태웠는데 향나무 즙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목욕 재계한다는 의미이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고 향을 태움으로써 신을 숭배하며 자신들이 기원하는 바를 신이 들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술적 안녕을 기원하는 이유도 있겠고 또 신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향나무의 가치를 사르고 향나무 즙으로 만든 향수나 향료를 미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림 1-6>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문신	<그림 1-7>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눈 주위를 진흙으로 칠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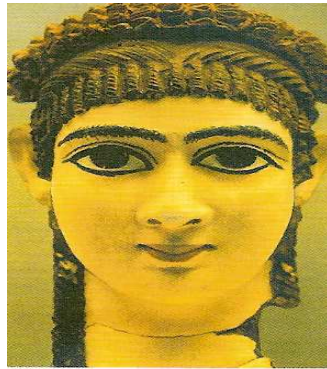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 11

4) 신체보호설

다른 동물에 비해 약한 인간이 자신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위장하기 위하여 한 치장 등이 신체 보호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학설이다. 실제로 원시시대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하거나 위장을 통해 적을 공포감에 몰아 넣어 신체를 보호하였다. 귀신이나 마귀를 쫓기 위해 얼굴이나 몸에 색칠을 하는 관습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 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혼례 때 신부가 연지 곤지를 칠하는 것은 주색축귀²⁹의 속설에

29 朱色逐鬼 주색축귀: 붉은색으로 잡귀를 쫓음.

서 비롯되었다.



<그림 1-8> 벌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눈 화장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 11

5) 이성유인설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미용술이 이성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됐다는 학설이다. 실제 인간은 관심을 끌기 위해 이성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지 싫어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은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분위기를 다양하게 포함으로써 이성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 보면 신들은 저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였고 이성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을 하였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아름다움 때문에 질투하여 연적들에게 복수의 화살을 날렸고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비너스)는 큐피트의 화살로 신과 인간의 가슴속에 사랑의 화살을 쏘아 넣었다.³⁰ 이성에 관심이 없으면 삶이 가치를 상실할 정도의 이성유인론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장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http://hanja.naver.com/search.naver?dic_where=hanja&query=%C1%D6%BB%F6&query_euckr

30 김춘득(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pp. 18~21.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 10

종 류	내 용
본태설	■ 식욕과 성욕이 본능이듯이 아름다움을 가꾸고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학설 ■ 아프리카 북부지방에서 출토된 빌렌도르프여인상 - 가슴이 풍만, 허리가 잘록, 둔부가 발달 - 무의식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이 타고난 본능임을 증명.
장식설	■ 남녀 구별이나 계급과 같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화장, 문신 등이 장식처럼 활용되다가 발전하여 아름다움을 가꾸는 수단이 되었다는 학설- 원시시대 신분, 계급, 종족, 남녀의 성별을 구분(충성과 용맹과시) ■ 1991년 알프스 빙하에서 석기시대 사람에게서 문신의 흔적 확인.
종교설	■ 신체의 안녕을 위한 주술적인 방법이라는 학설. ■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향나무즙을 몸에 바름으로 신을 경배하고 자신이 기원하는 바를 들어 준다고 믿음.
신체 보호설	■ 다른 동물에 비해 약한 인간이 자신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위장하기 위하여 한 치장 등이 신체 보호 수단으로 발전했다는 학설 ■ 원시시대 사람들의 상처나 문신-적에게 공포를 줌. ■ 귀신, 마귀를 쫓기 위해 얼굴이나 몸에 색칠하는 관습. ■ 신부의 연지곤지- 주색축귀의 속설에서 비롯.
이성 유인설	■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미용술이 이성이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시작됐다는 학설. ■ 그리스, 로마신화의 제우스 아내 헤라의 복수, 아프로디테(비너스)의 큐피트의 화살.

<표 2> 미의식의 학설

3. 한국인의 전통적인 미인형

우리 조상들은 어떤 기준으로 미인(美人)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통사회에서 한국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한 미인은 쌍꺼풀 없는 작고 가는 눈에, 복스럽고 약간은 퍼진듯하지만 둥글둥글한 코, 얼굴은 보름달 같이 둥글고 희며 뺨은 통통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탐스러워야 하며 버들가지와 같이 가는 허리에 푸짐한 엉덩이를 가져야 최고의 미인으로 보았다.³¹ 즉, 건강하고 풍만한 여성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농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찍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옛날에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산이 필요했으며, 또한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건강과 풍만함이 미인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전통사회의 미인의 첫째 조건으로 “우아하고 정숙하며 맑은 태도”였다.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고전소설(古典小說)에서 그려지고 있는 절세의 미인형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느 한 작가의 생각이나 이상에 그쳤다면, 그 작가 한 사람의 미인관(美人觀)에 지나지 않겠으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작가들에 의하여 창조되고 꾸며진 미인상으로 어떤 공통의 지향성을 가질 때,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므로, 그것을 한국인의 전통적인 미인 관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인의 기준은 길 용모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갖추어야 할 재질(才質)이 있는 것이다. 용모와 품성과 재질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서 미인이 되는 것이다. 용모라 함은 전체적인 얼굴 모습이나 몸매가 주는 인상이 있으며, 눈, 코, 귀, 입, 머리 등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고전소설 속의 용모 묘사표현은 얼굴생김새, 이목구비, 머리모양에 대한 부분적인 묘사로 표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서왕모가 요지에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양태진이 태액지에 임한 것 같기도 하다. 꽃은 얼굴이 되고 옥은 모습이 되어 한송이 금련화가 이슬을 머금고 바야흐로 터지려 하는 것과도 같다.”

“눈썹은 꼬부라졌고 뺨은 통통하며 의롭게 둥근 흰달과 같은데, 얼굴에는

31 <http://www.sukji.hs.kr/school/home/subject/main>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 (오유란전, p. 133)

“낭자의 얼굴은 구름 속의 보름달 같고 태도는 한 송이 아침 이슬을 흠족히 머금은 듯 ……”

“두 눈의 추파는 경수 같고 가는 허리는 봄밤에 나부끼는 버들가지와 같고 붉은 입술은 앵무 단사(丹砂)를 문 듯하니 천고무쌍이요 일세독보의 절대가인이었다.” (숙영낭자전, p. 215)

“얼굴을 볼작시면 춘이월 반개도화 은빈에 어리었고 초승에 지는 달빛 아미간에 비치었다.”

“앵도순 고운 입은 빛난 당채 주홍필로 꼭 찍은 듯하고 세류같이 가는 허리 봄바람에 하늘하늘, 찡그리며 웃는 것과 말하며 걷는 태도 서시와 포사라도 따를 것이 없건마는” (변강쇠전, p. 215)

“얇전한 몸가짐과 고운 얼굴이 세상에 드물며 온갖 맵시를 고루 갖추었으니, 이는 하늘이 내신 절색이다. 이를테면 홍련화가 아침이슬에 반개하듯, 해당화가 봄바람에 날리듯 하여 진실로 천하의 가인이요 숙녀이더라.”

“그 아리따운 자태는 마치 서왕모가 요지연에 내린 것이 아니면 월궁항아 낙포에 내린 것 같더라, 신부는 낙포의 복비라, 준수한 용모와 화려한 태도가 서로 비치니, 이는 날개를 의지하여 원앙이 굴광에서 물결을 희롱함이 아니면, 꼭지가 녹아 오른 부용이 연못에서 이슬을 머금은 듯하더라.” (옥랑자전, p. 278)³²

“아침 해가 붉은 노을을 헤치며 솟아 오르고 연꽃이 바로 푸른 물에 비친 것 같아……” (구운몽, p. 67)

“구름 같은 머리는 흩어졌는데, 옥비녀는 비스듬히 걸쳐있고 잠자던 눈은 몽롱하여 꽃다운 정신이 어리석은 듯하고 약한 기질이 힘이 없어 줄음의 흔적이 아직도 눈썹 끝에 맺혔으며 뺨의 연지는 반이나 지워져서 본디의 자색과 예쁘장한 몸가짐은 말로서는 도저히 형용치 못하고” (구운몽, p. 28)

“구름 같은 머리채를 반달같이 둘러 얹고 버들잎 같은 눈썹을 여덟 팔자

32 김종택(1979), 『韓國人의 傳統的인 美人觀』,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여성문제연구소, p. 7.

로 다듬고 옥 같은 연지 불은 삼사월 호시절의 꽃송이 같고 박속 같은 잇속은 두이짜로 방그레 웃어 반만 벌리고서 흰 모래밭에 금자라 같은 걸음으로 아기작아기작 왕래하니 어느 눈이 황홀하지 않으랴.” (옥단춘전, p. 50)

“구름 같은 머리를 흠어 옥 같은 얼굴을 가리우고 홍도 방첩에 눈물흔적이 미미히 있으며 아미춘산에 수색이 참담하고 황황급급한 모양이 나타나니” (소학사전, p. 15))³³

그리고 전통적인 미인은 용모만 좋아서 되는 것은 아니다. 품성, 즉 숙덕(淑德)³⁴을 갖추어야 한다. 숙덕이 없는 미색(美色)은 향기가 없이 빛깔만 요란한 꽃과 같으니, 꽃으로서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미인의 품성을 표현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점점 장성하심에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시고 용색이 찬란한 숙녀이시며 고금에 방불하여 비할 데 없으시고 여공과 몸의 거동 하나하나가 민첩하기 이를 데 없어 마치 귀신이 돕는 듯하시되, 희노를 타인이 알지 못하고 무심무념 한 듯하시고 성질이 유한한 듯하시고 덕도가 빈빈하시고 효성이 남달리 뛰어나시고 마음 됨이 겸손하시어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셔서 종일 단정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위연한 화기 봄별과 같으시되 단엄침중하신 기상이 감히 우렐어 뵈옵기 어렵고 맑고 좋은 골격이 설중매와 같으시고 높고 곧은 절개 한천송백 같으시니,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인현왕후전, 김태길 p. 62)

심청전에서 “심 봉사의 아내 괘씨부인도 또한 현철하여 임사의 덕과 장강의 아름다움과 목란의 절개를 갖추었더라, 예서와 시경 중에 본받을 대목은 모르는 것이 없고 제사를 받드는 법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법을 비롯하여 동리 사람과 화목하고 가장을 공경하고 살림하는 솜씨라든가 무슨 일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잘 하더라.”³⁵

유교사회에서의 여인상이란 한결같이 인고하며, 유순하고 근면할 뿐 아니라,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가내 법도를 지키는 데, 성심을 다하는 것으로 그

33 김종택, 전계논문, p. 8.

34 품성, 즉 여자의 압전한 덕행을 말함.

<http://kr.dic.yahoo.com/search/kor/result.html?p=%BC%F7%B4%F6>

35 김종택, 전계논문, P. 13.

직분을 다할 수 있었다. 미인의 요건으로 재질을 말할 수 있는데 재질, 즉 재능은 몸에 익힌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숙향전- “숙향의 얼굴은 일월 같고 배우지 못한 글에 능통하고 수놓기를 잘 하매 승상부부의 사랑이 친딸 이상이었다.’

사씨남정기- “소저의 나이 십 삼세에 성덕자질이 선인이 하강한 듯하여 현세 사람이 아니오며 길쌈 범절은 다시 이를 것이 없사옵고 문장 재학이 한 나라 조대가의 문장이라 하더이다.”

금오신화- “나이 열 대여섯쯤 되었는데 맵시는 아리뭇고 자수에 능하며 시부에도 뛰어났다.”

춘향전- “월매 딸 춘향 이도 시서음률이 능통하니 천중절을 모를 소냐”

심청전- “재질마저 비범하고 문필마저 넉넉하여 인의예지와 삼강행실에 있어 무엇이든 못하는 일 없이 잘하니”³⁶

인용문에서 보면 조선시대 미인은 시서 문필에도 통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성미이며 교양미를 필요로 했던 당시의 의식구조나 미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외형적 조건의 미모는 대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머리 술은 풍부하고 곱게 다듬어져야 한다. 구름 같은 머리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은데, 그것은 풍부한 머리 술을 말한다.

둘째, 검은 눈썹이 둥글게 다듬어져야 한다. 미인의 얼굴을 그리는데 검은 눈썹은 희고 고운 살빛과 함께 대조를 이루며 얼굴의 조화미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미인의 얼굴에 있어서 흰 얼굴에 가늘고 검은 눈썹은 얼굴의 균형을 잡는데 중요하다.

셋째, 눈은 별빛처럼 맑고 젖어 있어야 한다. 경수 같은 추파는 은근한 정을 표시하는 감정의 창문이다. 눈은 적당히 가늘고 작아야 한다.

넷째, 입술이 탐스럽고 붉어야 하는 것은 미인이 되는 출발이다. 붉고 고운 입술은 건강과 순정을 표시한다. 앵두 같은 입술이며, 앵무가 단사(丹砂)를 문 듯하다는 것은 입술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뺨은 적당히 둥글고 불그레해야 한다. 옥 같은 연지 불이니, 홍도

36 김태길(金泰吉)(1977), 『小説文學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値觀』, 一志社, p. 62.

화 같은 양협(兩頰)³⁷ 은 성숙을 뜻할 뿐 아니라, 수줍음의 표상이기도 하다.

여섯째, 살빛이 희어야 한다. 그것은 몇 가락 검은 머리털과 조화를 이루는데도 필요하지만 감추어진 여인의 속살을 보는 창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곱째, 여인은 가냘프고 부드러워야 한다. 세류 같은 가는 허리를 가진 가냘프고 연약한 여인이어야 한다.

여덟째, 미인의 이는 희고 골라야 한다. 반개한 입술 사이로 두 줄 나란히 정제된 잇모습은 부드러움 가운데, 굳은 정절과 인내를 감추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홉째, 목소리는 아름답고 작아야 한다. 이는 겸손이며 동시에 수줍음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열째, 여인의 키는 커서는 안된다. 살이 찌서도 안되고 소리가 커서도 안되듯이 키도 남자보다는 적당히 작아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국인의 전통적인 미인상은 용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천부적인 덕성을 구비하고 그 위에 빼어난 재질을 바탕으로 한 깊은 지성미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용모, 품성, 재질 등의 필수적인 요건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서 미인으로 남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7 두 뺨 http://hanja.naver.com/search.naver?dic_where=hanja&query

4. 현대 한국인의 미인형

현대인이 생각하는 미인관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이가 쾌감을 동반한 어떤 종류의 감정상태에 빠질 때, 그 대상을 미인이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사람은 대상을 볼 때 대개 몇 개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대상물이 시야에 들어와서 보는(see)단계로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그 본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feel)단계가 있다. 이때는 “두렵다든가” 하는 감정을 위주로 한 판단이 생기게 된다. 다음에는 대상을 천천히 살펴보고 분석하는(read)단계를 거쳐서 판단을 내리고 단정을 지어 하나의 경험적 지식으로(know)로 뇌 속에 저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장된 지식으로 현대인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대상을 접했을 때 이미 형성된 느낌과 지식으로 비추어 보게 된다는 것이다.³⁸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준은 “한국인이 어떤 얼굴을 미인으로 보느냐”가 곧 “한국인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되므로 한국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자들의 일반적인 얼굴은 가로와 세로의 최대 폭 대 길이 비가 평균 1:1.3이다. 보통 우리는 한국인의 얼굴이 매우 넓적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1:1.3의 비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미인형이라고 보는 달걀형의 가로 세로 비와 일치한다.³⁹ 이에 비하여 현대 한국인들의 이상적 미인 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미스 코리아의 평균은 1:1.5로서 달걀보다 훨씬 가름하다. 이것은 우연하게도 밀로의 비너스 상과 일치하는 비례이고, 서양인 여자의 평균 비이기도 하다. 이것은 현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미인에 대한 관점이 서양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한 증거이다.

다음의 내용에서는 조용진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한국 여성의 가장 평균적인 얼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38 조용진(1988), 『現代 韓國人の 美人觀』,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문 p. 619.

39 조용진(2001), 전제서, p.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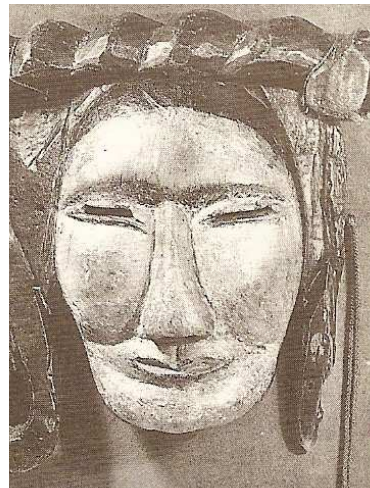
<그림 1-10>

현대 한국인은 1:1.5의 얼굴비를
가진 긴 얼굴의 서구형 미인

출처: 『우리 몸과 미술』, p. 102

<그림 1-11>

1:1.3의 전통미인 복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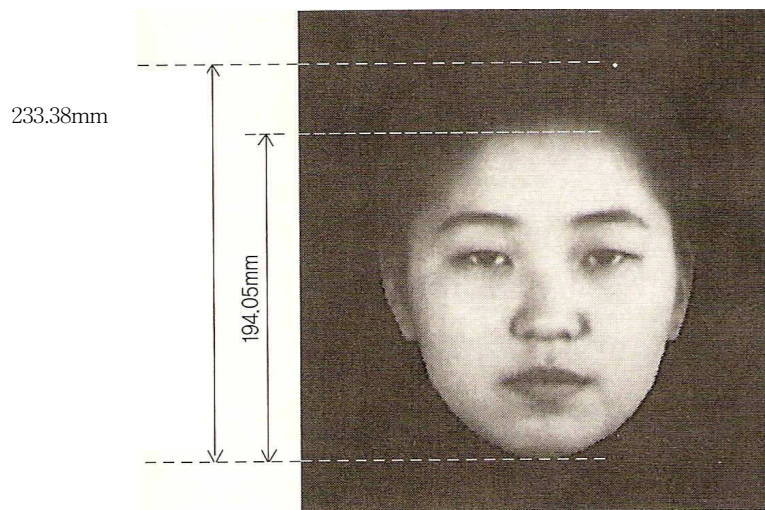
<그림 1-12>

한국 여자 얼굴의 평균을 보여 주는 하회 각시 탈

가로: 세로 비인 1:1.3과 일치

출처: 『우리 몸과 미술』, p. 205

한국인 얼굴의 세로 비에서 머리 전체의 세로 길이(턱 끝에서 정수리 끝까지)를 재어보면 233.38mm로 얼굴의 길이도 194.05m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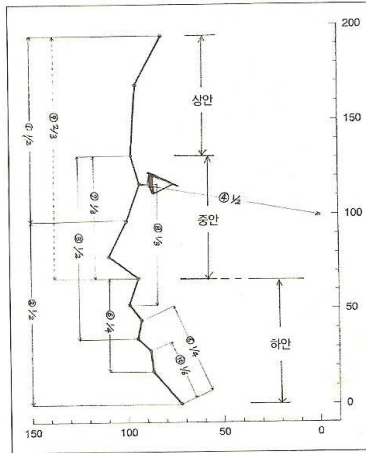


<그림 1-13>

현대 한국인의 평균적인 머리 전체 세로 길이
출처: 『얼굴, 한국인의 낮』, 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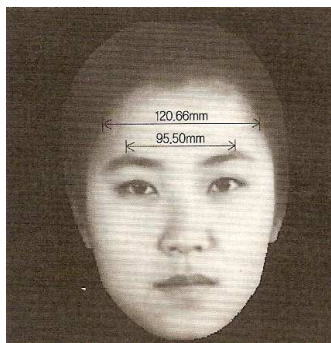
얼굴 길이와 얼굴의 가로 폭의 비를 보면, 한국인은 1:1.37로 전통적인 계란형 얼굴이 1:1.30과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얼굴의 세로 길이를 미간, 코 밑을 경계로 상안(上顔), 중안(中顔), 하안(下顔)의 셋으로 나누어 보면, 한국인의 이마 평균은 63.09mm로 이마의 높이가 높다.

중안의 길이는 64.91mm이며, 코 밑부터 턱까지의 하안의 길이는 66.05mm로 한국인 중에는 턱이 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반영하며 턱이 크다는 특징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한국인다운 얼굴로 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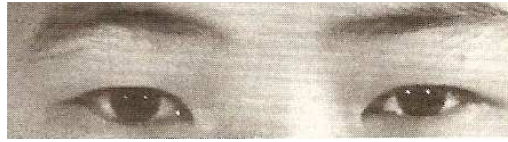
<그림 1-14>
한국인 얼굴의 세로비
(상안 63.09mm 중안 64.91mm 하안 66.05mm)
출처: 『얼굴, 한국인의 낮』, p. 46

얼굴의 인상에서 이마의 모양도 크게 관계가 있는데 젊은 층은 이마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으나 고령층은 꽤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마의 가로 폭은(대략 양쪽 눈썹의 끝부분에 가까운 앞이마와 옆 이마의 경계)120.66mm 넓으며, 전두 최소 폭의 측정치는 95.50mm로 좁은 편이다. 이것 또한, 한국인 다운 얼굴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1-15>
이마의 가로 폭 120.66MM 전 두 최소 폭 95.50MM
출처: 『얼굴, 한국인의 낮』, p. 47

미간의 넓이는 26.29mm 넓으며, 눈의 길이는 31.33mm 로 한국인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큰데 비해 작으며 눈동자의 면적은 107.83mm²이다. 코의 넓이는 36.51mm 비폭(鼻幅)이 작고 뚜렷하지 않다. 턱의 가로 폭은 117.97mm 넓다. 입의 길이는 45.58mm로 크다.



<그림 1-16>

한국인의 눈과 미간

출처: 『얼굴, 한국인의 낮』, p. 4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인은 얼굴이 넓고 길며, 이마가 넓으나 앞이마가 특히 좁고, 코 등 중안부의 길이가 짧은 편에 눈, 코, 입이 작고 턱이 큰 특징을 띠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국인의 얼굴은 중안부가 오목하여 옆에서 볼 때는 거의 직선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얼굴이 오목해 보인다는 것은 콧구멍에서 코허리, 코 밑까지의 투영적 직선거리가 짧다는 것으로 이런 특징을 가진 얼굴은 특히 코 있는 언저리가 오목하게 모여서 평면적인 얼굴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인의 미인형을 세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졸기(古拙期)형 미인이다. 우리가 직접 대면했던 얼굴들. 즉 위에서 살펴 본 한국 여자의 평균적인 얼굴에 근거한 형이다.

50~60대의 고령층이 지지하며, 눈이 크지 않고, 턱이 있는 하안부가 약간 큰 형이다.

둘째, 고전기(古典期)형 미인이다. 고전기라 함은 미술사(美術史)의 고전기로서 일반인들이 쓰는 옛날식과는 내용이 좀 다르다. 이 형은 눈썹이 시작하는 미간에서 코 밑까지의 얼굴 중앙에 해당하는 세로 길이를 100으로 볼 때 하안부 턱이 96~100 정도를 차지하는 형으로, 한국인 30~4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 낭만기(浪漫期)형 미인으로 턱이 중안의 86~96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턱이 작은 형이다. 10~20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형이다

세 유형의 중안 길이는 모두 62~64mm 이내에 들기 때문에 서로 차이 나는 곳은 코 밑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이다. 결국, 턱이 큰 형, 중간형, 작은형으로 구별되는 것인데, 60~70대들은 세 번째 낭만기형을 “어쭙잖게 생겼다” 라고

보고 있으며, 10~20대들은 첫 번째의 고졸기형에 대하여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한다. 요즘의 미인 관은 10~20대가 선호하는 낭만기형으로 기울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낭만기형 미인 관이 우세하다는 사실은 물론 경제 발전에 따른 물질적 풍요에서 온 것이기도 하다.⁴⁰

미스 코리아의 얼굴 계측에서도 보면, 이들이 한국인으로서는 드물게 서구적 특징의 용모를 가졌으면서도 얼굴길이의 계측 수치는 한국 젊은 여자들의 평균치인 186.34mm에 부합하는 186.00mm를 보이고 있어서 눈에 익숙한 한국인의 평균적 요소가 미의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2007년 현재, 한국 콘텐츠 학회에서 1970년 이후 30년간 미스 코리아선발대회의 본선 수상자 171명의 얼굴 변화 모습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뚜렷한 변화로 이마는 길어진 반면 턱은 짧아졌다는 것이다.⁴¹ 시간이 갈수록 체형은 서구화 되고, 사람들은 이런 서구적인 외모에 한국의 고전적인 미를 갖춘 미인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²

즉, 한국인에 있어 나타나는 미인 관의 특색은 국제화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접하게 되는 서구인의 용모에 의하여 뇌 속에 형성되는 시각적 평균 얼굴 형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서구인 용모 선망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서구적 물질문명의 가치지향과 물질적 풍요에 따른 낭만적 감성적 미인 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0 조용진(2003), 『얼굴, 한국인의 낯』, 사계절, p. 132.

41 <http://www.kunta@donga.com>

42 <http://kbank.nate.com/qna/qnaRead.do?TableCode=20&questione>

구분	특징
눈,살갓 및 두발	빛깔 면에서 섞인 색깔이 많고 두발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살갓은 대체로 더 밝은 편이다.
털	곱슬거리고 부드러우며, 턱수염은 드물고 털이 조금 더 치밀하다.
두상 뼈	길이가 짧고 너비가 크다.
얼굴	넓고 평평하다.
코	높이가 낮고 뚫려 있는 너비는 크고 코 끝과 바닥이 더 솟아 있으며, 코의 축은 더 가로로 놓여 있다.
입	윗입술의 높이가 높고 입술전이 상당히 널리 퍼져있고 두께가 더 두껍다.
속 눈주름	쌍꺼풀이 잘 발달되어 있다.

<표 3> 현대 한국인 얼굴의 특징⁴³

43 안미영, 전계논문, p. 21.

구분	얼굴 황금 비율
얼굴의 폭	얼굴정면을 가로로 분할하며 헤어 라인에서 눈썹까지, 눈썹에서 콧 망울까지, 콧 망울에서 턱 끝까지 3등분으로 나누어 진다.
얼굴의 길이	얼굴 정면을 세로로 분할하고 전체적으로 3등분하여 이마에 머리카락이 난 언저리부터 눈썹까지의 간격 눈썹에서 코 끝까지의 간격 코끝에서부터 턱까지의 간격이 같아야 한다.
눈	눈의 가로길이는 얼굴의 폭을 5라고 할 때 1에 해당되며 눈의 세로길이는 가로길이의 1/3지점에 위치한다.
눈 썹	눈썹의 위치는 이마에서 1/3지점에 위치 한다.
눈의 거리	이상적인 눈과 눈 사이의 거리는 눈의 길이와 같다.
코	콧망울과 콧 망울의 폭은 코 길이를 100으로 했을 때 64정도가 이상적이다.
콧망울 위치	콧망울의 위치는 2/3 되는 지점에 위치 한다.
귀	코의 위치와 함께 얼굴의 중부에 위치하여 동일한 높이를 유지 한다.
턱	형태에 따라 표준형 턱은 수직으로 연장한 선상에 위치하며 이상적인 턱의 크기는 눈 사이의 간격과 동일하다.
입	이상적인 입술은 윗입술과 아래 입술의 비율이 1:1.5 인 경우이다.

<표 4> 얼굴의 비율⁴⁴

44 김필레(2004),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Ⅲ.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1. 미스 코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大韓女性(대한여성)의 眞善美(진선미)를 世界(세계)에 자랑 할 미스 코리아 選拔(선발)”

반세기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이와 같은 포스터로 시작하였다. 1957년 5월 제1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서울 명동 시립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전후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볼거리가 없던 시대적 상황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대외적으로 매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할 미인을 뽑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미비했던 상황으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세계를 상대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민간외교 무대였고, 국민들의 국제행사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한국일보 사와 코리아 타임즈 주최, 문교부, 보건사회부, 공보실,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열린 첫 대회에 무려 57명의 참가자가 신청했다.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상 여성들이 미인대회에 출전하여 무대를 활보한다는 것 자체로 일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의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좌석은 물론 복도에까지 넘쳐 흐르는 수많은 관중과 못 들어가서 앞을 다투는 문밖의 군중들로 일대 혼잡을 이뤘다” 라고 보도하였다. <그림 2-5> 이런 관심은 국제대회에서도, 수상하는 등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1960년 오현주가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인기상, 스피치상 등 4개상을 받으며⁴⁵ 미국언론과 시민을 매료시켜 큰 화제가 되었다.

1972년부터 미스 코리아선발대회가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면서, 미인대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한층 더 급증하게 되었다.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미스 코리아의 성과도 크게 부각되면서, 우리사회에서 미인에 대한 확고 부동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50년간 선발된 미스 코리아는 353명, 이중 200여 명이 미스 유니버스, 미스

45 <http://ksea.paran.com/sknow/queriew>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미스 아시아 퍼시픽, 미스 어스 대회 등 국제대회에 나가 한국 여성의 아름다움과 관직 없는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1988년 장운정이 준 미스 유니버스에 선발된 것을 비롯해 많은 미스 코리아가 입상의 영광을 누렸고, 특히 민족의상상 수상을 통해 한복과 한국여성의 단아한 이미지를 깊게 심어 주었다.

90년대 이후 사회변화와 일부 여성 단체들의 활동으로 미인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상품화 시비를 불러 일으켰으나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는 오히려 수많은 미인대회들 속에서 건전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무절제한 대회들을 걸러내는 여과 기능을 하였다. 초기에는 미국, 일본에 한국 대표를 참가시켜 현지 예선을 통한 동포화합과 2세들에 대한 자긍심 부여에 공헌을 했고, 현재 다른 해외지역대회를 확장하는 등 전 세계의 한민족에게 진한 동포애를 과급하고 있다. 해외지역대회뿐 아니라 본선대회를 통해서도 해외 홍보 및 민족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⁴⁶

또한 세계대회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한국의 미인으로 뽑힌 후보들이 출전할 수 있는 국제대회로 미스 유니버스 대회, 미스 월드대회,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 미스 어스 대회, 미스 아시아 퍼시픽 선발대회 등이다.⁴⁷

미스 코리아가 국제대회에 출전해 첫 입상의 영광을 안은 것은, 지난 59년 오현주가 미스 유니버스선발대회에 참가해서였다. 국제미인대회서 가장 좋은 성적은 미스 코리아 진 장운정이 미스 유니버스대회에서 2위에 해당하는 준 미스 유니버스로 뽑힌 것이다. <그림 2-3>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등 약 30~40개국의 대표가 참가하는 미스 아시아 퍼시픽 대회에서 69년

46 한국일보(2006), 『50th 2006 Miss Korea Festival』,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p. 113.

47 1)미스 유니버스(MISS UNIVERSE): 1952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시작된 미스 유니버스 대회는 규모나 명성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미스 코리아 진이 참가한다.

2)미스 월드(MISS WORLD): 가장 오랜 연륜을 가진 대회로 1951년 영국 런던 템스강 연안에서 개최된 브리튼 축제를 선전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57년 처음 참가한 후, 미스 코리아 선이 참가하고 있다.

3)미스 인터내셔널(MISS INTERNATIONAL): 1960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마이애미로 옮겨가자, 이듬해인 1961년 롱비치에서 별도로 창설한 대회이다. 미스 코리아 미가 출전한다.

4)미스 어스(MISS EARTH): 필리핀의 카루셀 프로덕션이 주최하고 있으며,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4위에 입상한 미스 코리아가 출전한다.

5)미스 아시아 퍼시픽(MISS ASIA PACIFIC): 필리핀의 미스 아시아 퀘스트사가 1968년 ‘미스 아시아대회’라는 이름으로 창설했으며, 이후 미스 태평양선발대회와 통합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미스 코리아 서원경이 미스 아시아로 뽑힌 것과, 94년 미스 코리아 선 윤미정이 필리핀에서 세계28명의 미인들을 제치고 미스 아시아 태평양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림 2-1> 2002년 김소윤이 대회 최고 미스 아시아로 왕관을 차지한 것으로 모두 세 번이다.

각 경쟁 부분 중 민속의상상은 유독 우리와 인연이 깊었다. 74년 미스 코리아 진 김은정, 77년 미스 코리아 진 김성희, 2000년 미스 코리아 진 김사랑, 83년 미스 한국일보 김종중, 83년 미스 보령 정영순, 88년 미스 코리아 미 김희정, 92년 미스 태평양 서연정, 93년 미스 에스페로 장미호, 2000년 미스 갤러리아 장은진, 2001년 미스 코리아 미 백명희, 2002년 미스 코리아 미 기윤주, 2002년 미스 갤러리아 이진아, 2002년 미스 광동제약 안춘영, 2005년 미스 코리아 미 유혜미 등 최고 권위의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는 3회 수상하였으며 모두 14회에 입상하였다. 한국 전통의상의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멋을 풍기는 한복의 우수성을 입증 받은 것으로, 서양의 미에선 느낄 수 없는 동양의 미가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그림 2-1>
96년 미스 아시아 태평양 수상



<그림 2-2>
92년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 3위
민속의상



<그림 2-3>
88년 미스 준 유니버스 민속의상



<그림 2-4>
88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

출처: 『미스 코리아 34인의 뷰티 노하우』, p. 1
『일간스포츠』, 1996.5.23



<그림 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모습

출처: 한국일보(2006), 『50th 2006 Miss Korea Festival』 ,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p. 113.

1) 자격 기준

지역대회 참가자격은 고졸이상 학력으로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 인자로 대한민국 및 해외동포 미혼 여성, 해당 참가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본적, 출생, 학교, 직장, 주민등록상 현지거주 2개월 이상), 미스 코리아 본선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자이다.

본선대회 참가자격은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진, 선, 미 또는 해외 각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후보로 단, 대회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시 참가자격 및 입상 자격 박탈.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품행이 단정한 여성이다. 흔히 신장과 체중 등에 출전 제한이 있었다.

년대 별로 미스 코리아의 체형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공통분모는 일단 키가 크다는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키가 160cm대에 머물렀으며, 그래도 당대엔 훗날의 여성들임에 틀림없었다.년대 별 평균 키를 살펴보면, 70년대는 166cm, 80년대 168.33cm로 160cm대지만, 90년대에 들어서는 172.93cm으로 경충 뛰었다. 하지만 몸무게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70년대에는 51.4kg, 80년대에는 49.96kg, 90년대는 50.04kg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날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슴-허리-힙 사이즈도 35-23-35인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⁴⁸ <표 5>

구분	50-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신장	156cm	166cm	168.3cm	172.9cm	173cm
체중	48kg	51.4kg	49.96kg	50.04kg	51kg
가슴- 허리- 힙	34-23-35	35-23-35	34-24-35	35.4-23.6- 35.4	35-23-35

<표 5>년대 별 미스 코리아 신체 변화

48 일간스포츠, 2000.5.26

2) 심사 방법

각계의 명망 높은 인사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심사위원 선정 등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심사위원들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대회 전날 선정된다. 심사위원들의 심사방식⁴⁹은 각 후보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게 되며 이들 점수는 합산 평균돼 우열이 가려진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이 점수는 무대 옆에 마련된 대형화면에 즉시 나타난다.⁵⁰

3) 시대적 배경 및 대회 개요

(1) 1957년 ~ 1979년

1950년 한국은 해방직후의 혼란스러웠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점차 질서가 단정된 생활을 하려던 차 비극적인 6.25동란을 당하여 다시 사회가 혼란해지고 문화 전체를 잃게 되었다.⁵¹ 6.25의 발생으로 미군들에 의하여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된 미국의 대중문화는 사회, 문화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60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잊을 수 없는 해였다. 자유당의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와 비민주적인 인권 탄압에 항거하여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교수, 지식인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난 4.19의거가 있었으며,⁵² 그 결과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서 1년여 동안 민주정치가 이루어졌으나, 고 박정희가 주도한 5.16군사 혁명으로 군사정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사회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혁으로 사회는 과학기술이 도입되어 우주에 관심을 가졌고, 교통 및 통신의 확대와 이에 따른 도시화의 촉진 그리고 대중매체의 대량 보급이 이루어졌다. 또한, TV의 보급 증가로 여성들의

49 심사방식: 1993년까지 투표제로 운영되었으며,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컴퓨터 집계를 통한 점수제가 도입. 2005년부터 다시 투표제로 전환됨. 한국일보(2006), 전계서, p. 108.

50 일간스포츠, 1996.5.23

51 전선정, 안현경, 이귀영, 문윤경, 전계서, p. 328.

52 김춘득, 전계서, p. 235.

패션에도 서구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70년대는 새마을운동 및 경제개발 운동으로 호황을 이루었다. 석유파동 이후 국제 경제의 안정과 활발한 무역정책으로, 점차 수출이 100억불에 달성하는 등 경제적 성장이 가시화 된 시기였다. 후반에는 경제가 고도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아파트 붐, 부동산 투기, 핵가족화가 되었고, 산업사회로의 변화된 모습은 소비로 이어져 편리하고 개성적인 삶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2-6>
1959년 5월 시가 행진



<그림 2-7>
군중으로 인한 혼잡

출처: 『한국미용 100년』, p266.

1957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시작부터 성대했다. 도심에선 카퍼레이드 행사까지 열려 많은 군중이 모이기도 하였으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마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72년부터 지상파로 미스 코리아선발대회가 중계되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여성의 미를 대표하는 미인대회로 굳건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정찬이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미스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 직접 유명한 샵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권유로 샵에 찾아와 직접 면접을 보았다고 한다. 일류 미용사는 미용실 뒤 쪽에서 후보자에게 푸른색 수영복을 입혀 보고, 몸의 흉터나 상처 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였으며, 또한 균형 있는 몸매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중시하여 살펴 보았다. 지적인 이미지는 질문의 대답을 통해 심사한 후, 합격 되면 일류 미용사는 피부, 네일, 헤어, 메이크업, 포즈, 워킹 등 전 과정을 트레이닝 시켰다고 한다.

당시 선생만의 노하우는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을 후보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워킹을 할 때는 가슴을 펴고 어깨를 붙이고 팔은 자연스럽게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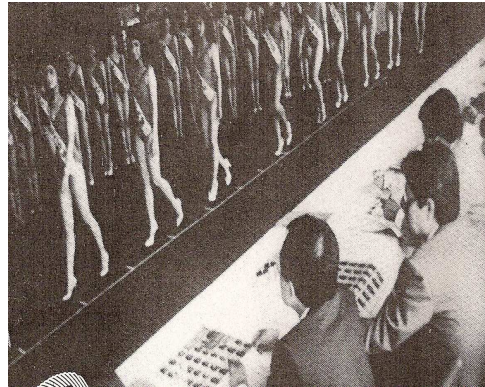
포즈를 취할 때는 허리에 손을 얹고 대각선으로 자세를 취했다고 한다.

(2) 1980년 ~ 1989년

1980년대에는 신 군부에 의한 강압정치로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1979년의 석유파동과 10.26, 광주민주항쟁 등의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경제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산업은 매우 심각하게 침체되었다.⁵³ 70년대 시작된 중화학공업의 집중적인 투자 효과로 경제가 서서히 성장, 안정되어 갔으며, 이로 인해 소비시장도 활성화되어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86 아시아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의 개최로 TV의 컬러 방송시대가 시작되었고, 컴퓨터에 기초한 산업화로 MTV(Music TV), VCR, CD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림 2-8>
지정미용실제도 도입
출처: 『주간여성』, 1987.7.12



<그림 2-9>
80년대 심사 모습
출처: 『주간 여성』, 1988.6.5

80년대는 컬러 TV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더욱 화려해지고 부각되어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미스 코리아의 건강상태나 태도 등도 많이 상향되면서 국제무대에서 서구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미인들과 경쟁할 만 하였다. 당시의 심사 기준은 서구적인 아름다움에 한국의 고전미가 잘 조화돼 있는 개성적인 용모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심사위원들은 『자연의 미』를 절대적 조건으로 삼아 품위 있고 자연미 있

53 전선정 외, 전계서, p. 351.

는 후보들을 주로 당선시켰다. 80년대에는 『후천적인 미』 즉, 태도나 교양, 매너, 화술, 화장, 패션, 헤어스타일 등의 성행도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제외 하곤, 어느 정도 인정하는 추세였다.

또한, 몸매나 각선미를 중시하던, 초창기와는 달리 80년대엔 4:6 정도로 몸매와 얼굴 중 얼굴을 더 중시하였다. 70년대의 미인은, 피부가 백옥처럼 희어야 했지만, 80년대에는 다소 가무잡잡하더라도, 윤기와 건강미가 있으며, 머리색, 체격등과 조화를 이루는 피부 색깔이면, 감점대상은 되지 않았다.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은 1987년 5월 17일 주간여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인상이 중요하다.

미스다운 몸가짐에 개성이 강해야 되고 무엇보다 남의 시선을 강하게 끌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굴에 있어서는 크지 않아야 하며 말할 때와 웃을 때 치아가 골라야 하고 잇몸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또, 얼굴 전체의 균형이 잡혀야 되고 눈과 코는 지나친 성형을 하지 않아야 하며 신체의 중앙부위인 목, 어깨, 팔, 가슴은 선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몸 전체에 큰 점이나 상처가 있어도 안되고, 걸을 때의 자세, 피부, 매너, 교양미, 가정환경, 교육 정도와 외국어실력도 질문을 통해서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키가 큰 사람만 위주로 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미인이란 조화가 만드는 것임을 알려 주는 부분으로 한 두 가지가 좋다고 미인이 될 수 없듯이, 비록 하나 하나는 조금 부족 하더라도 전체 구조의 비율과 후천적 미와 교양이 조화를 이룬다면 미인이 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엄격하게 제시된 기준들이 국제대회에서 풍성한 결과를 얻게 하였다. [표 6]

또한, 미스 코리아 친선모임인 ‘녹원회’⁵⁴가 발족되어, 영원한 한국 미의 사절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며, 여성문화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초대 총 회장으로서는 61년 미스 코리아 선 『이다나』가 선출되었다.⁵⁵

54 녹원회: 한국 최고의 미인대회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의 역대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1987년에 결성되었으며, 간절한 인간애와 조그만 사랑의 실천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 봉사 단체.

55 <http://kbank.nate.com/qua/qnaRead.do>, 자료검색일 2006.07.05



<그림 2-10>
양로원 방문
출처: 『미스 코리아 34인의 뷰티 노하우』, p. 1



<그림 2-11>
심장병 돕기

수 상 자	미인대회 명	수상내역
오현주(59년 준)	1959 유니버스	인기상, 스포츠상
김명자(63년 준)	1963 유니버스	5위
최유미(63년 준)	1963 인터내셔널	5위
서원경(69년 준 미스선)	1969 아시아 포시픽	진
정금옥(72년 미스 숙)	1973 아시아 포시픽	4위
김은정(74년 준)	1974 유니버스	민속의상상
김성희(77년 준)	1977 유니버스	민속의상상
김중중(83년 한국일보)	1983 인터내셔널	민속의상상
정영순(83년 보령)	1983 인터내셔널	민속의상상
임지연(84년 태평양)	1985 아시아 포시픽	2위, 베스트이브닝가운
최은희(85년 태평양)	1987 아시아 포시픽	4위, 포토제닉상
장윤정(87년 준)	1988 유니버스	2위
최연희(87년 준)	1988 미스 월드	2위, 아시아 최미인
김미림(87년 모)	1988 아시아 포시픽	5위
김희정(88년 모)	1989 인터내셔널	민속의상상
염정아(91년 준)	1992 인터내셔널	3위, 포토제닉상
서연정(92년 태평양)	1993 아시아 포시픽	민속의상상

수 상 자	미인대회 이름	수상내역
장미호(93년 에스텔로)	1994 아시아 포시픽	민속의상상
윤미정(94년 손)	1995 아시아 포시픽	진
성현아(94년 모)	1994 인터내셔널	포토제닉상
최윤영(95년 손)	1995 미스 월드	5위, 아시아최고 미인
이지희(96년 모)	1996 아시아 포시픽	베스트이브닝 나운
김정화(96년 손)	1996 인터내셔널	포토제닉상
김사랑(2000년 진)	2001 미스 유니버스	민속의상상
손태영(2000년 진)	2000 미스인터내셔널	2위, 포토제닉 상
장은진(2000년 갤럭시)	2000 아시아 포시픽	민속의상상
서현진(2001년 선하이트)	2001 미스 월드	베스트드레스 상
백명희(2001년 미 토토)	2001 미스인터내셔널	민속의상상
김지혜(2001년 골디듀)	2001 아시아 포시픽	탤런트상
기윤주(2002년 미머르빠)	2002 미스인터내셔널	민속의상상
이진아(2002년 갤럭시)	2002 미스 코스	민속의상상
김소윤(2002년 골디듀)	2002 아시아 포시픽	1위, 포토제닉 상
안춘영(2002년 광동 제약)	2003 아시아 포시픽	민속의상상
오은영(2005년 선 3BQ)	2005 미스 월드	TOP 6 (Queen of Asia)
유혜미(2005년 진)	2005 미스 코스	민속의상상

<표 6> 국제 미인대회 수상내역

(3) 1990년~1999년

1970, 80년대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에 힘입어 1990년대는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민주화에 따른 생활의 다원화로 급진전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탈 산업 사회적 기초가 마련되고 국제 교류의 팽창에 따른 국제 의식의 성장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1995년 3월 1일, 보도 교양 오락 영화 등 각 분야의 21개 전문채널(channel)이 일제히 본 방송을 개시하자 전국 50개의 종합유선방송국은 케이블을 통해, 각 가정에 이를 송신했다. 케이블 TV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이다. 방송학자들은 케이블 TV가 출범한 1995년을 ‘방송혁명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 TV나 방송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물고 올 변화가 그야말로 혁명적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TV 전송 망을 기반으로 하여 각 가정과 사무실의 TV, 컴퓨터, 전화, 팩시밀리(facsimile)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멀티미디어(multi-media)시대에 들어서면서, 생활패턴은 물론 우리의 의식구조까지 변화시켰다.⁵⁶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낙동강 폐놀 오염(91), LA 폭동(92), 성수대교 붕괴(94), 삼풍 백화점 붕괴(95) 등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으면서 고속성장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던 날림공사에 대한 반성 등 역사적으로 커다란 전환기의 상황을 맞이하였다.⁵⁷

56 전선정 외, 전계서, pp. 359~360

57 김영인, 전계서, p. 134



<그림 2-12> 합숙 훈련⁵⁸
출처: 『스포츠신문』, 1996.5.23

90년대의 미의 기준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뽑내면서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미인을 뽑는 것이었다. 한국 최고 미인의 기준은 나이 평균 19.9세, 키는 172.7cm, 몸무게는 50.9kg, 가슴, 허리, 엉덩이 둘레는 35-23-35가 평균이었으며, 조각상에 가까운 완벽 몸매를 자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지성미, 표현력, 인생관, 가치관등 내적인 미와 체격, 신체균형, 인상 등 외적인 미를 종합적으로 검비하였다.

미스 코리아들은 보름 동안 외부와 차단된 ‘美의 병영’에서 철저하게 합숙을 하면서 우정도 쌓고 선의의 경쟁도 하며 무대 위에서 지켜야 할 매너 등을 익힌다. <그림 2-12>

정찬이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합숙에 참석할 때 미스 코리아는 1명의 미용사와 동행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에피소드로 미스 코리아와 선생의 의상을 바꿔 입고 들어가야만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 미용사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던 선생의 의상이 더 좋아 보여서 출입구에서 선생을 미스 코리아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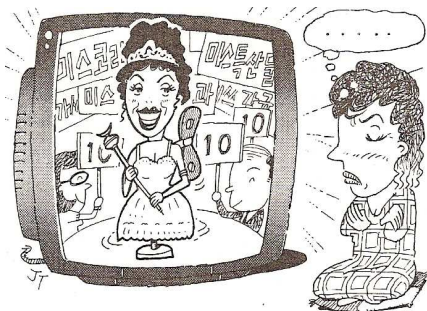
58 합숙제도: 처음 도입된 것은 1968년부터 이다. 미스 코리아 대회에 출전한 참가자들에게 20여 일 간의 합숙으로 친밀감을 주고, 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 최초의 합숙장소는 현 서울경찰청 모퉁이에 있었던 뉴내자 호텔이었으며 기간은 1주일 이었다. 한국일보(2006), 전제서, p. 114.



<그림 2-13> 새 왕관
출처: 『한국일보』, 1996.5.23

96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새롭게 디자인된 왕관은 한복의 선을 형상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림 2-13> 치들 듯하다 넘어가는 한복 당의에서 볼 수 있는 선이 중심부에 놓여 있으며 한국 여인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 배어 나와야 하는 우리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도에서 형상하였다. 소박하면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모란꽃이 중심의 격자 창살무늬 위에 배열돼 있고 그 양 옆에는 잎의 문양이 강조돼 있어서 한층 미스 코리아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 주었다. 왕관에는 1,396개의 천연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컴퓨터처리 오류로 재심사하는 소동이 생기면서 이를 계기로 미인대회 무용론이 들끓고, 여성단체 회원들은 미인대회가 여성의 성 상품화와 여성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대회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림 2-14>
미스 코리아 풍자화
출처: 『서울신문』, 1998.6.2



<그림 2-15>
미스 코리아 대회 반대시위
출처: 『조선일보』, 1998.5.30

(4) 2000년 이후

밀레니엄 시대에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전 세계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되어 유행의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이 이루어지고 한반도는 햇빛정책의 결과로 통일이 된 듯 온 세계가 흥분하였다. 하지만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다시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 되었다. 2002년에는 한일 공동 월드컵이 개최되어 한국은 4강 쾌거로 온 국민이 열광하였으며,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전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디지털 시대로 성장하면서 다기능을 포함한 모바일 제품의 개발과 함께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원하는 것을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는 멀티채널 시대에 진입하였다.



<그림 2-16>

연예계 등용문

출처: 『미스 코리아 34인의 뷰티 노하우』, p. 1



<그림 2-17>

방송활동

2000년대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지상파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여성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로 지상파 중계방송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2002. 5. 21일자 스포츠신문 기사를 보면, “미스 코리아 사상 첫 케이블 TV 중계되면서 시청률이 동 시간대 점유율이 최고 67배나 증가하였다.” 즉, 한국 대표미인에 대한 관심은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으로 핵폭탄 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아직도 범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7년 미스 코리아 진 김성희가 가수로 데뷔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80년대 중, 후반과 90년대를 거치고 2007년 현재까지 미스 코리아 출신의 스타가 많

이 탄생하고 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대중 문화의 영향으로 연예계에선 스타의 등용문으로 대회가 개최되면, 연예인 매니저 등이 후보들을 무대 뒤에서 또는 모니터를 통해 ‘화면 발’과 실물을 세세히 비교 분석하면서 후보들의 면면을 일일이 체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초기부터 미국, 일본의 대표를 참가시켜 현지 예선을 통한 동포화합과 2세들에 대한 자긍심 부여에 공헌을 했고, 현재 다른 해외지역대회를 확장하는 등 전세계의 한민족에게 진한 동포애를 파급하고 있다. 해외 지역대회뿐만 아니라 본선대회를 통해서도 해외 홍보 및 민족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2. 1959년 ~ 1979년

1) 유행경향 분석

(1) 헤어스타일

1950년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으로 유엔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양부인들의 강한 컬 퍼머 스타일이 일반 여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영화의 영향으로 오드리 헵번의 헤어스타일이 헵번 스타일로 전세계 헤어 스타일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림 2-18> 콜드퍼머⁵⁹의 등장으로 여성들은 열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시술 후 모발의 손상도 적게 만들었다. 부광 스타일의 바깥 말음은 경쾌하게 모발 끝을 바깥쪽으로 한 스타일로 역동적이며 젊은 형태로 유행하였다.

60년대 밋밋한 스타일에 식상한 대중들은 가발 붐을 일으켰으며, 탑 부분에 백콤을 넣거나 싱을 사용하여 과장되게 부풀려서 머리를 곱게 빗었다. <그림 2-20> 머리에 양감을 준 형태로 전체적으로 부풀려서 웨이브를 준 바가지스타일과 백조라인은 조금 변형된 스타일이었다.

70년대는 커트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커트 형태가 나타났다. <그림 2-23> 외국 영화 여배우의 이름을 딴 세실 커트 등이 유행하였고, 미용분야에서는 커트 개념이 새롭게 정립된 시기로 기존의 머리를 자른다는 개념에서 모발을 각도에 따라 나누어 기하학적으로 자른다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림 2-22> 초반에 유행한 <그림 2-25>세기커트는 뒤 목덜미 부위에 길게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일명 거지 커트라고도 불렸다. 또한 닭 벅슬처럼 이마 부분을 높여 일명 자존심 머리라 세우는 스타일도 있었다. 바람이 휩쓸고 간듯한 바람머리<그림 3-26>는, 자연스럽게 관리하기 편리하여 삽시간에 유행하였으

59 콜드퍼머: 1934년 Goddard, Michelis가 치오글리콜산염을 이용하여 최초로 콜드퍼머넌트웨이브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그 후 1936년 Speakman이 아황산수소나트륨을 이용하여 100도 전후의 가열이 필요했던 시술온도를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서 충분한 웨이브가 얻어지도록 하였다. 현대의 콜드퍼머넌트웨이브는 1940년경 미국의 MoDonugh가 치오글리콜산염을 주제로 하는 cold permanent wave의 연구에 성공함으로써 현재의 제품형태에 가깝게 개발되었다. 정현진, 조진아, 장경옥, 김성남, 유우정, 박종순 공저(2004), 『미용문화사』, 광문각, p. 197.

며, 중반에는 머쉬룸 형태<그림 2-23> 즉, 버섯모양의 형태가 인기를 얻었다. 후반에는 불균형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듯한 머리 모양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블로우 드라이라는 새로운 기구와 기법에 의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머리 결을 살리는 스타일을 하였다. <그림 2-24>



<그림 2-18>

오드리 햅번의 픽시 커트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152

<그림 2-19>

50년대 S자형 웨이브

출처: 『현대패션 100년』, p.181



<그림 2-20>

크라운 뽐베지

출처: 『동서양 미용문화사』, p.236

<그림 2-21>

60년대 발표된 헤어스타일

출처: 『현대패션 100년』, p.231



<그림 2-22>
기하학적 커트



<그림 2-23>
권케이브, 머쉬룸, 엄브렐라

출처: 『동서양 미용문화사』, p. 246



<그림 2-24>
블로우 드라이



<그림 2-25>
세기커트



<그림 2-26>
바람머리

출처: 『한국미용 100년』, p. 252

(2)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서양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다. 다소 인위적인 메이크업이 많았고, <그림 2-27> 아이라이너를 길게 빼고 얼굴 윤곽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오드리 헵번처럼 굵고 진한 눈썹과 길고 확실한 아이라인을 그렸다. 아이새도우도 눈을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했으며, 피부는 혈색 있게 보이도록 핑크색을 하였다. 하얀 피부에 대한 선호는 계속 되었으며 미백효과가 있는 팩이나 화장품이 인기를 끌었다.⁶⁰

60년대의 국내 화장품시장은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로

⁶⁰ 전선정 외, 전게서, p. 334.

화장품이 사치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자유로운 발전이 은근히 제약 받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⁶¹ 영화가 성행함에 따라 짙은 입술화장과 피부가 번들거린다고 해서 붙여진 유리화장은 직업여성들 사이에서 붐을 이루었으나, 일반 여업집의 여성들은 화장을 한다는 것이 애초 기대 밖의 일이었다. 직업여성들은 50년대 화장법을 그대로 이어서 윤기 있는 피부표현과 검은 눈, 아주 창백한 입술의 메이크업을 하였으며, 풍성한 속눈썹, 가짜 주근깨가 탄생되기도 하였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강조되면서 신선한 이미지 성향이 나타났던 시기로 메이크업의 포인트를 눈에 주었고 <그림 2-28> 아이새도우는 녹색이나 파란색 계통을 발랐으며<그림 2-30>, 과장된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그림 2-29> 아이라인은 뚜렷하고 끝이 약간 길면서 들려 올라가도록 그렸다. 입술은 갈색 등 자연스러운 색을 칠하고 립글로스를 덧발랐으며 입술라인은 아웃커브라인으로 그려 눈 화장과 맞추어 육감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최초로 71년 메이크업 캠페인은 메이크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색채 화장 계몽을 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무채색만으로 알던 메이크업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실로 충격적이고 대단한 것이었다. 캠페인 메이크업 패턴은 비교적 패션에 관심이 높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메이크업에 대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서양 미의식에 의한 얼굴 윤곽의 강조로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볼 연지⁶²를 함으로써, 부드러운 여성미를 더해 주는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하였다. <그림 2-32>

또한, TV메이크업의 영향으로 얼굴을 골격학적으로 T존과 V존으로 나누어 T와 V자 모양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어 밝은 분위기를 나타내게 하는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 화장에 속눈썹은 길고 짙어 보이도록 하였고 아이라인은 아이새도우와 섞여 자연스러웠고, 속눈썹을 사용하여 눈썹을 가늘게 그리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메이크업 분위기는 투명한 피부화장에 가늘고 긴 눈썹, 핑크, 보라색이 주류를 이루며 둥글고 깊은 눈매와 볼 연지로 여성미를 더해 주었다. <그림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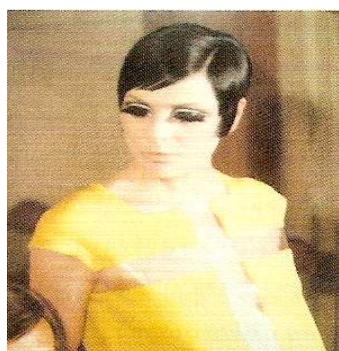
61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 홍보실 자료, 2007.3.17

62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 상세서



<그림 2-27>
인위적인 메이크업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 143, p. 170

<그림 2-28>
아이 메이크업



<그림 2-29>
인조 속눈썹



<그림 2-30>
파란 계통의 아이섀도우



<그림 2-31>
투명 피부표현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170,



<그림 2-32>
입체화장
출처: 『한국여성의 색조화장』
p.52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1) 헤어스타일

초창기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은 유행의 경향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미스 코리아만의 고전적인 단아한 기품과 우아함이 강조되었다. 심사하는 부분에 따라 헤어스타일 변화도 있었으며 이브닝 드레스 심사 시는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하여 머리를 아이론으로 웨이브를 한 후 위로 빗어 올려 올림머리 모양의 스타일을 하였다.

1950년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은 퍼머의 등장으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어려 보이는 중단발의 헤어스타일은 이전의 짧은 머리유행에서 긴 머리 모양을 만들기 위한 변화 과정으로 후반의 유행 경향이 반영되었다. <그림 2-34> 밋밋한 긴 머리에 자연스런 질감을 주기 위해서 <그림 2-33>, <그림 2-35>와 같이 이마 한쪽에 S자형 뱅을 만들어 약간의 생동감을 주었다.

60년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은 커다란 머리 흐름을 조합하여 하나로 올려 전체적인 윤곽의 균형을 살린 올림머리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다. 앞머리 부위와 귀 양 옆에 부푼 양감을 2중으로 한 듀오 라인 형태의 올림머리 스타일을 일명 “방울 머리”⁶³라 불렀다. 방울머리는 미스 코리아의 우아하고 고전적인 모습을 나타냄과 동시에 동양의 작은 여성의 키를 보완할 수 있었다.

귀 양끝을 뽕족하게 하여 뽕치게 한 <그림 2-36>은 새 새끼가 날려고 퍼덕퍼덕하는 모습의 바깥말음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풍부한 볼륨 감을 주고 양 옆 머리끝을 치켜 올려 긴 얼굴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림 2-59>는 수영복 심사 시 크라운 부분에 부분가발을 이용하여 볼륨감을 주고 헤어 밴드로 장식하였다. 앞머리를 올백으로 모두 넘기고 백콧과 부분가발을 이용하여 과도하게 부풀려서 서구적 미인처럼 키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점차 수영복 심사에서의 과장된 올림머리 형태는 사라졌다.

70년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은 블로우 드라이 영향으로 전체적인 형을

63 정찬이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하여 탑을 살려 둥글게 한 헤어스타일을 말한다.

살리는 <그림 2-46>, <그림 2-51>은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약간의 장식적인 움직임 주었다. 또한 아이론의 영향으로<그림 2-49>, <그림 2-54>는 당시의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리 헤어스타일로 머리 길이는 미디움 길이로 길게 하여 아이론으로 굵실거리는 웨이브를 하기도 하였다. 컷불 위쪽에 아이보리와 연한 초록 옅으로 장식을 하여 물망초 꽃을 살짝 꽃아 우아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2-48>은 타이트하게 빗어 올린 모발을 흐름대로 네이프 하단에서 한 묶음으로 묶은 형태이다.

커트 붐 영향으로 <그림 2-53>은 머쉬룸 형태, 즉 버섯모양의 머리형태로 모발의 흐름이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흘러서 모발 끝을 안쪽으로 향하게 모아 심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당시의 미스 코리아는 긴 머리만을 선호하였으나 커트의 유행 영향으로 짧은 헤어스타일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70년대 말부터 일명 “사자머리”라 칭하는 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 형태가 나타났다. 미스 코리아선발대회에서 동양의 작은 여성의 키를 커 보이게 하고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더욱 서구적인 미인의 모습을 모방할 수 있었다. <그림 2-58> 반면 자연스런 웨이브의 버디 퍼머<그림 2-60>는 손질하기 편하여 미스 코리아들도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 헤어 장식으로는 자연적인 소재의 꽃, 핀, 헤어 밴드 등을 활용하였다.

<그림 2-54>, <그림 2-60>

(2) 메이크업

정찬이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의 미스 코리아의 메이크업은, 영화 속의 메이크업을 많이 인용하였고, 눈 화장은 진하게 하였으며 아이새도우는 아이홀 전체 골고루 펴 발랐다고 한다.

영화 스타들로 인해 아이라인은 강조되고 입술을 새빨갭게 칠하는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하였다. 주간여성의 기록에도 “미스 코리아들은 다른 참가자들 보다 돋보이려는 욕심에 무조건 진한 메이크업을 원했다.” 라고 한다.

① 피부

피부는 하얗게<그림 2-45>, <그림 2-52> 하기 위해서, 화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고, 얼굴의 음영을 주어 입체적인 메이크업을 하였다. 여러 색을 사용하는 색조 메이크업 영향으로<그림 2-50>, <그림 2-57>처럼 양 볼에 볼 터치를 하여 얼굴 형태를 커버하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하였다.

② 눈

미스 코리아에게 있어 아이 메이크업은 상당히 정성을 들여 강조 하는 부분으로 서구적 미인의 큰 눈을 표현하였다. 50년대 미스 코리아의 눈썹은<그림 2-33>, <그림 2-34>, <그림 2-35> 둥글고, 진한 라인을 하여 고전적인 미인형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아이새도우는 라인을 확실히 그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림 2-35>

60년대 아이 메이크업은 50년대 흐름이 그대로 이어져 눈썹은 뚜렷하고 끝부분은 둥글고 가늘게 그렸다. 눈은 아이라인을 진하게 하여 크고 깊이 감 있는 눈매를 표현하였다. <그림 2-37>, <그림 2-39>,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5>

70년대는 눈 화장에 강한 포인트를 주어<그림 2-46>, <그림 2-54>, <그림 2-56> 아이새도우를 전체 넓게 펴 바르고 속눈썹을 사용하여 풍부한 볼륨과 더불어 깊이 감 있는 눈매를 강조하였다. 또한, 마스크라를 사용하였다. 눈썹은 60년대 보다 가늘고 연하게 하였다. <그림 2-49>, <그림 2-58>

<그림 2-54>는 미스 코리아 김성희의 증언에 의하면 갈색을 눈 전체에 펴주고 갈색 아이새도우를 라이너처럼 그리면서 눈 끝에서 약간 올려 마무리했는데, 눈썹은 만들어진 눈썹이 아니라 흡사 자신의 눈썹인 것처럼 보이도록 가능한 한 내추럴하게 선을 그린 뒤, 화이트 아이새도우로 눈썹 밑에 하

이라이트를 주어 발랐다. 아이 홀 중앙에도 하이라이트를 주면 눈매가 더욱 생기 있어 보인다. 아이라인은 진한 밤색을 사용하여 눈 중앙의 속눈썹을 먼저 메워 주고, 눈 앞머리 중앙에서 다시 눈꼬리 쪽으로 라인을 그려주었다. 마스카라는 눈썹 끝 쪽을 더 짙게 그리고 여러 번 빗듯이 칠해주어 깊이 감 있는 눈매를 강조하였으며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하였다 라고 한다.

③ 입술

50년대 미스 코리아 입술은 서구적 미인의 입술을 본떠 핑크색 계통의 립스틱을 발라 건강하고 혈색 있는 미인으로 보였다.

60년대 입술은 서양 영화의 영향으로 <그림 2-37>처럼 입술라인을 아웃커브 라인으로 그려 자신의 입술보다 인위적으로 표현되어 육감적으로 보였다.

70년대 입술은 색조 메이크업의 영향으로 레드, 오렌지, 핑크 등으로 더욱 화려해지고 <그림 2-46>, <그림 2-51>, <그림 2-52> 또한, 립글로스를 덧발라 도톰하고 촉촉하게 보였다.

<그림 2-54>의 입술 모양은 윤곽을 뚜렷하게 그려주었다. 입술 안쪽은 주로 연한 색을 사용하였으며, 얇으면서 약간 넓고, 입술 선도 각이 진 듯한 느낌이 들게 하여 얇으면서 샤프하고 지적인 입술로 표현하였다.



<그림 2-33>
57년 뱅 스타일



<그림 2-34>
58년 중단발



<그림 2-35>
59년 S자형 웨이브



<그림 2-36>
60년 부광플립 스타일



<그림 2-37>
61년 듀오 라인



<그림 2-38>
62년 듀오 라인



<그림 2-39>
63년 탑 볼륨 업스타일



<그림 2-40>
64년 탑 업스타일



<그림 2-41>
65년 가발사용 업스타일



<그림 2-42>
66년 방울머리



<그림 2-43>
67년 탑사이드 볼륨 업스타일



<그림 2-44>
68년 포니테일



<그림 2-45>
69년 업스타일



<그림 2-46>
70년 볼륨 강조



<그림 2-47>
71년 풍성한 볼륨 미디움



<그림 2-48>
72년 스트레이트-텔



<그림 2-49>
72년 가늘고 긴 눈썹



<그림 2-50>
73년 양감강조 업스타일



<그림 2-51>
74년 내추럴 웨이브



<그림 2-52>
75년 듀오 라인



<그림 2-53>
76년 머쉬룸



<그림 2-54>
77년 진한 속눈썹



<그림 2-55>
77년 내추럴한 생머리



<그림 2-56>
78년 스트레이트



<그림 2-57>
79년 볼 터치



<그림 2-58>
79년 사자머리



<그림 2-59>
수영복 심사



<그림 2-60>
바디 퍼머



<그림 2-61>
장신구



<그림 2-62>
망토를 두른 모습

[1957 ~ 1979 미스 코리아 자료 사진] ⁶⁴

64 출처: 『미스 코리아 34인의 뷰티 노하우』, p. 1
<http://misskorea.hankooki.com> 자료검색일.2006.6.30
 한국일보(2006), 『50th 2006 Miss Korea Festival』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http://kr.blog.yahoo.com/kbs> 자료검색일.2007.04.12
 『한국일보』, 1976.5.12 『중앙일보』, 1993.5.25

3. 1980년 ~ 1989년

1) 유행경향 분석

(1) 헤어스타일

80년대 초에는 바리깡과 레이저를 사용한 커트가 유행하였다. 젊은 여성층에서는 스트레이트 퍼머와 긴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하였으며 헤어 무스, 젤,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앞머리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림 3-1> 전체적인 머리의 염색보다는 액센트를 주거나 컬러의 조화가 돋보이는 대담한 컬러링을 하였다. 퍼머의 종류도 다양해서 기본형의 퍼머부터, 핀 컬 퍼머, 부메랑 퍼머 등 특수 로드를 이용한 퍼머가 유행하였다. <그림 3-2>



<그림 3-1> 과장된 앞머리
출처: 『동서양 미용문화사』
, p.251

<그림 3-2> 퍼머의 전성기
출처: 『한국미용 100년』, p.292

(2) 메이크업

1970년대에 이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소비 패턴과 미의식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각 TV방송국들이 컬러방영을 하면서 연예인들의 메이크업 패턴이 일반인에게 그대로 침투되었다. 메이크업은 패션과 조화를 이루고 입술과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제시되었다.

80년대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는 바탕화장이 주를 이루며 초반에는 화사하고 신비로운 메이크업<그림 3-4>이 유행하였다. 중반에는 아이라인을 펜슬

로 가늘게 하였으나 점차 내추럴하게 변하였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동양적 분위기<그림 3-3>의 황금색과 붉은색 등이 제시되었으며, 눈썹과 입술선도 동양적인 곡선형으로 표현되었다.⁶⁵ 일상의 생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UV화장품이 기초 제품에서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붐을 이루었다.⁶⁶



<그림 3-3>
동양적 분위기 메이크업
출처: 『한국여성의 색조화장』, p. 69

<그림 3-4>
포인트 메이크업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1) 헤어스타일

80년대는 미스 코리아의 전성기였으며, 헤어스타일은 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로 사자머리가 주를 이루었다.

정찬이 선생의 구술에 의하면, 미스 코리아의 “사자머리”는 강한 퍼머 스타일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고, 화려하게 보임과 더불어 키를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풍부한 볼륨 감은 우아하고 사진도 잘 나오게 하였다고 한다.

60년대 주를 이루었던 올림머리 스타일<그림 3-5>는 사라졌다. 70년대 유행된 단발머리는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에서도 미디움 기장의 다양한 헤어

65 전선정 외, 전게서, p. 359.

66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 전게서.

스타일로 나타났다. 미디움 기장에 굽은 웨이브<그림 3-6>, 또는 자연스러운 블로우 드라이 컬<그림 3-8>, 스트레이트<그림 3-7>, 꼬불꼬불 강한 퍼머<그림 3-10> 등 커트 스타일의 유행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상고 형 커트의 <그림 3-23> 짧은 헤어스타일도 있었다. 뒷머리와 옆머리를 치켜 올려 자르고 앞머리는 길게 커트하여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하여 옆으로 넘어 가도록 하는 쇼트 커트 웨이브는 바람에 날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미스 코리아들은 머리가 짧은 경우에는 한 해를 늦추어 다음해 대회에 참가하였으나 영국의 다이애나 비 커트스타일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롱 레이어에<그림 3-19> 굽은 웨이브를 하여 앞머리를 세우는 스타일로 8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스타일이다. <그림 3-20>은 미스 코리아의 전형적인 퍼머 스타일로 머리 전체를 곱슬곱슬하게 부풀림으로 화려하고 무대의상과 잘 어울렸다. <그림 3-11>은 탑 부분을 짧게 하여 풍부한 움직임 주었으며, 앞머리는 뱅으로 내린 후, 퍼머하여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다. 머리 끝 부분은 가볍게 커트하여 안쪽으로 얼굴을 감싸도록 하였다.

세로로 컬을 감은<그림 3-24>는 그대로 풀어서 곱실거리게 컬을 말아 놓은 모양으로 생동감과 움직임을 주었다. 장식구는 길게 늘어지는 형태의 귀걸이를 하였다.

(2) 메이크업

여권이 신장된 사회에서, 미스 코리아는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메이크업을 시도하였으며 입술과 눈을 강조하였다.

작은 얼굴형이 미인형으로 인식되면서 메이크업도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 이전보다 진하게 하였다. 특히 눈 주위를 더 강하게 화장하여 포인트를 주었다.

① 피부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고자 하얗게 하였으며, 무대 위 밝은 조명에서도 음영을 살릴 수 있는 입체적인 메이크업을 하였다.

② 눈

눈을 커 보이게 위하여<그림 3-5> 라인을 굵고 진하게 하였으며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길고 풍부하게 표현함으로 눈동자가 선명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

다. <그림 3-11>은, 고전적인 곡선형의 눈썹으로 윤곽을 뚜렷하게 강조 했으며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필을 사용한<그림 3-16>은 눈을 신비롭게 보이고 자신의 눈썹 형태 보다 길게 표현하였다. <그림 3-14>는 아이라인을 펜슬로 진하게 하여 깊은 눈매를 강조하였다.

③ 입술

립스틱의 칼라는 오렌지, 레드 계열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입술라인을 표현하였다. <그림 3-5>, <그림 3-11>, <그림 3-16>

입술을 동양적인 곡선형으로 윤곽을 확실하게 표현한 후 립글로스를 덧발라 주어 반짝이면서 촉촉한 느낌의 입술을 표현하였다. <그림 3-5>, <그림 3-16>, <그림 3-18>



<그림 3-5>
80년 올림머리



<그림 3-6>
81년 미디움 굽은 웨이브



<그림 3-7>
82년 미디움 스트레이트



<그림 3-8>
83년 블로우 드라이 컬



<그림 3-9>
84년 미디움 퍼머 스타일



<그림 3-10>
85년 미디움 퍼머 스타일



<그림 3-11>
86년 고전형 곡선 눈썹



<그림 3-12>
86년 내추럴 웨이브스타일



<그림 3-13>
87년 굵은 웨이브



<그림 3-14>
87년 아이 메이크업



<그림 3-15>
88년 볼륨 강조 퍼머 스타일



<그림 3-16>
88년 긴 눈썹



<그림 3-17>

89년 사이드 볼륨 강조된 퍼머 스타일



<그림 3-18>

89년 곡선형의 입술 메이크업



<그림 3-19>

굵은 룡 레이어



<그림 3-20>

사자머리



<그림 3-21>
아이론 웨이브



<그림 3-22>
S 자형 웨이브



<그림 3-23>
바람머리



<그림 3-24>
세로롤 스타일



<그림 3-25>
수영복 퍼레이드

[1980 ~ 1989 미스 코리아 자료 사진] ⁶⁷

67 출처: <http://misskorea.hankooki.com> 자료검색일.2006.6.30
『미스 코리아 34인의 뷰티 노하우』, p. 1
<http://kr.blog.yahoo.com/kbs> 자료검색일.2007.04.12
『스포츠신문』, 1986.5.5, 『한국일보』, 1995.5.14

4. 1990년 ~ 1999년

1) 유행경향 분석

(1) 헤어스타일

90년대 초에는 60년대 복고풍으로 돌아가는 경향으로 크라운 부위에 양감을 살리면서, 앞머리는 롤 스트레이트 하여 자연스런 움직임이 있는 로맨틱 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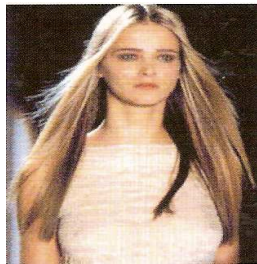
퍼머는 여러 가지 개발된 특수 룩트에 의해서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무스, 젤, 헤어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스타일링 하였다. 헤어 커트는 주로 레이저를 사용하여 머리끝을 가볍게 해 주었으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앞머리를 길게 층을 내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한 긴 머리 스트레이트와 볼륨 없이 달라 붙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또한 코팅 퍼머는, 퍼머와 컬러 코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갈색, 와인 색이 유행하였다. 헤어 컬러링 <그림 4-1>은 더욱 다양하고 대담해져 총 천연색으로 머리 전체를 염색하기도 하고, 모발 몇 가닥을 블리치(bleach)하여 각자의 개성을 살리기도 하였다. 중반 이후, 아이론 퍼머, 곱슬 머리 스트레이트 등에 의해 아이론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말기에는 헤어 익스텐션이 유행하여 몇 가닥 내지 머리 전체를 실리콘으로 붙이기도 하였다.⁶⁸ 또 헤어 리퀴드 등의 모발관리 제품이 출시되었다.

68 전선정 외, 전계서, p. 364.



<그림 4-1>
부분 탈색 및 컬러링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p. 232



<그림 4-2>
스트레이트 및 롤 스트레이트
출처: 『동서양 미용문화사』, p. 257

(2) 메이크업

90년대 메이크업 경향은, 주로 60년대와 70년대의 복고풍 스타일이 리메이크 되었다. <그림 4-3> 복고 느낌을 주는 새로운 아이섀도우 기법으로 아이홀을 강조하는 눈 화장을 하였다.⁶⁹

오드리 헵번 스타일로 눈썹의 앞과 중간은 굵으면서 끝은 날렵하게 끝나도록 그리는 것이 유행하였고, 아이라인은 끝을 두껍게 그려 주었으며, 입술은 도톰하게, 피부는 밝고 깨끗하게 하였다.⁷⁰

또한 21세기를 앞둔 말에는, 피부의 투명 감을 강조하기 위해, 베이스 파우더를 사용하였으며 아이섀도우, 블러셔, 립스틱에 펄을 가미하여 광택이 나도

69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 전게서.

70 전성정 외, 전게서, p. 367.

록 하였다. 또는 창백한 베이스에 반짝이는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으로 눈꼬리를 강조하고, 마스카라를 듬뿍 바르며, 입술 색은 광택 있게 하였다. 입술 메이크업에서는 립라이너를 사용하여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하였다.⁷¹ 기초 화장품은 자연 재료가 대세를 이루었다.



<그림 4-3>
복고풍 메이크업
출처: 『한국여성의 색조화장』, p. 165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1) 헤어스타일

90년대까지는 미스 코리아의 사자머리 형태가 계속 나타났다. 하지만 70년대 후반과 80년대 보였던 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 형태가 아니라 굽은 웨이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퍼머 스타일 형태로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이는 당시의 열을 이용한 퍼머, 셋팅 퍼머, 매직 퍼머 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러움 등의 내추럴 경향이 반영되었다.

초반까지는 전체적인 강한 퍼머 스타일이 그대로 공존하였으며<그림 4-4> 중반의 자연스런 굽은 웨이브 스타일을 거치고, 후반이 되면서 60년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의 주를 이루었던 올림머리 형태의 업 스타일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71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 전세서.

머리 끝 부분을 새털처럼 가볍게 한 샤키 커트 스타일의 영향으로 80년대 보다 머리 전체 모습은 모양이 적고 가벼웠으며 움직임이 자유분방하여 불규칙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 4-13>은 모발을 묶지 않고 볼륨을 주어 내려뜨린 형태의 스타일로 앞머리를 일으켜 세워 빗어 올려 모 속을 비틀어 모아 고정시켜 모발흐름을 살렸다. 전체적으로 탑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얼굴도 길게 보이고 좁은 이마를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그림 4-10>은 굽은 웨이브로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형태만을 살려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그림 4-15>는 롱 레이어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가볍게 층을 내어 굽은 웨이브를 하고 앞머리는 최대한 치켜 올려 볼륨 감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앞머리는 뱅으로 자연스럽게 장식한 <그림 4-14>와 볼륨을 살려서 세밀하게 빗질하여 소프트 한 걸을 스프레이 등 헤어 제품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재창조 하였다. <그림 4-5>, <그림 4-8>

올림머리 형태는 백콤을 이용한 과장된 부풀림의 형태가 아니라, 머리 전체에 굽은 웨이브로 탑 부분을 빗질한 후 한데 모아 고정시키고 그 형태를 둥글게 펴서 모양을 내거나<그림 4-16> 또는 상 하로 길게 펴서<그림 4-18> 과장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리본장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4-24>

모발을 판넬이나 하드보드를 이용한 스트레이트의 뒤를 이어 열을 이용한 매직스트레이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스타일이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에도 나타났다. 탑 부분은 볼륨을 살려서 반 묶음 머리 형태로 하였다. <그림 4-19>

장신구로 귀걸이는 더욱 커지고, 늘어지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종류와 재질도 다양하였다. <그림 4-17>, <그림 4-18> 90년대 색깔을 넣어서 입체감을 주었던 강한 원색의 컬러링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 메이크업

자연 환경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자연 그대로의 색감과 질감을 나타내는 내추럴한 경향이 나타났다. 미스 코리아 메이크업은 무조건적인 유행이나 기존의 인위적이고 진한 화장의 전통을 따르기 보다는 개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성을 살리는 메이크업을 하였다. 또, 피부에 대한 관심으로 기초 화장을 중요시 하였다.

① 피부

내추럴 메이크업의 영향으로 화장의 색조도 옅어지고 가벼워졌으며 피부도 투명하게 연출하였다. <그림 4-22>

자신의 피부 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피부화장을 하였다.

② 눈

미스 코리아 메이크업에서 가장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아이 메이크업이다. 그 동안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진한 눈 화장을 고수하였으나 90년대의 양상은 달랐다. 눈은 자연스러워지고 선명하게 하였다. 눈썹은 굵고 짙은 화장은 피했으며 둥글게 그려 부드러움을 표현하였고, 끝은 날렵하고 자연스럽게 끝나도록 그렸다. <그림 4-5> 아이라인은 인위적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려 선명하고 깊은 눈매를 표현하였다.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길게 하여 풍부한 볼륨 감을 주었다. <그림 4-10>

③ 입술

1995년 5월 13일 신문기사에 의하면, 미스 코리아후보들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시하는 눈과 입술 메이크업에서 대회 기간 내내 평균 13개 정도의 립 스틱을 바른다고 한다. 하지만, 미스 코리아 메이크업에서 입술 화장은 색상이나 형태에서 변화가 가장 적은 부분이었다. 80년대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자연스럽게 오렌지, 레드 계열을 사용하였으며, 입술라인은 과장되지 않고 형태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 4-4>
90년 프린지 볼륨 강조
스타일



<그림 4-5>
90년 끝이 날렵한
눈썹



<그림 4-6>
91년 탑 볼륨 강조
스타일



<그림 4-7>
92년 내추럴한
퍼머 스타일



<그림 4-8>
92년 탑 사이드 강조
퍼머 스타일



<그림 4-9>
92년 미디움 굵은
웨이브



<그림 4-10>
93년 내추럴 메이크업



<그림 4-11>
94년 탑 볼륨 업스타일



<그림 4-12>
95년 굵은 웨이브



<그림 4-13>
95년 품과돌



<그림 4-14>
96년 앞머리 뱅 장식



<그림 4-15>
97년 층 많은 룡 레이어



<그림 4-16>
98년 둥글게 펼친
업스타일



<그림 4-17>
99년 탑 강조 업스타일



<그림 4-18>
99년 상하 긴 업스타일



<그림 4-19>
스트레이트



<그림 4-20>
소라형 업스타일



<그림 4-21>
움직임이 강한 웨이브



<그림 4-22>
투명 피부



<그림 4-23>
볼륨 강조 굵은
퍼머 스타일



<그림 4-24>
리본 장식

[1990 ~ 1999 미스 코리아 자료 사진] ⁷²

72 출처: <http://misskorea.hankooki.com> 자료검색일, 2006.6.30
『미스 코리아 34인의 뷰티 노하우』, p. 1
『중앙일보』, 1992.5.18 『한국일보』, 1996.5.23
<http://kr.blog.yahoo.com/kbs>, 자료검색일, 2007.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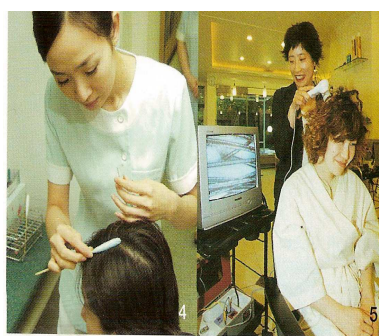
5. 2000년 이후

1) 유행경향 분석

(1) 헤어스타일

2000년대는 유행하는 여성 잡지나 배우, 가수 등의 스타일이 새로운 트렌드로 제시되었다. 커트는 맞아 떨어지는 층에서 불규칙한 디스커넥션 커트스타일과 모발 끝을 가볍게 한 샹디 커트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존(Zone)의 개념을 두상에 접목시킨 존 커트, 밀머리 양감을 많이 감소하는 다양한 질감 표현의 커트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림 5-2>

웰빙, 건강을 주도하는 분위기의 영향으로 컬러 링도 5~6톤의 어두운 레벨로 윤기와 부드러움을 더했으며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의 브라운 칼라를 선호하였다. 퍼머도 셋팅, 매직, 아이론, 디지털, 텍스처, 볼륨, 옥퍼머, 등 열을 이용한 특수퍼머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5-1> 헤어 케어에도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케어제품이 출시되었다. <그림 5-3>



<그림 5-1>
텍스처퍼머

<그림 5-2>
울프컷

<그림 5-3>
헤어케어

출처: 『헤어스타일가이드매거진 룩』

(2) 메이크업

정형화된 이미지에 식상함을 주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해 진정한 자아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남과 구별되는 독특한 메이크업 이미지가 표출하게 되었다. 과장되고 진한 화장 보다는 자연스러움이 강조된 메이크업을 하였다. 피부는 전체적으로 약하게 하여 건강하게 표현하였다. 아이라인은 파스텔 톤을 사용하였으며 아이 홀까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주어 꼼꼼하게 그려주었다. 또한 속눈썹은 블랙 마스카라로 치켜 올려 정돈하였다. 입술화장은 라인을 그려 강조하기 보다는 립스틱 색과 동일하게 칠하였다.⁷³



<그림 5-4>

눈썹화장



<그림 5-5>

피부 메이크업

출처: 『한국여성의 색조화장』, p. 240

2)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분석

(1) 헤어스타일

2000년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은 퍼머도 굵고, 자연스러워 과거의 꼬불꼬불한 퍼머 스타일 형태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90년대 후반의 커트 경향이 그대로 이어져 머리 끝부분은 뽕족하게 질감을 표현하였고, 모량을 많이 감소하여 가벼워졌다.

전체적인 헤어스타일 형태도 스트레이트, 굽은 웨이브, 올림머리 등 다양해

73 김영인, 전게서, p. 240.

졌다. 개성을 중시하는 미스 코리아의 성향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머리의 길이도 롱, 미디움, 쇼트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초창기 일색이던 전형적인 긴 머리 형태를 고수하던 것과는 달랐다. 오히려 미스 코리아 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창출하였다. <그림 5-25>의 쇼트 스타일로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밝힌 기사를 보면, “아나운서에 도전하려고 머리를 자른 지 30분 만에 대회 출전을 권유 받아 짧은 머리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게 됐다” 고 한다.⁷⁴ 짧은 헤어스타일도 개성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스트레이트 형태 <그림 5-6>는 긴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양 옆은 흐르도록 하였다. 스트레이트 형태의 변형으로 탑에 볼륨을 주어 반 머리 묶음으로 늘어뜨리기도 하였다. <그림 5-9>, <그림 5-26>

올림머리도 탑에 볼륨을 준 <그림 5-11>, <그림 5-21>, <그림 5-27>과 탑에 볼륨을 주지 않은 <그림 5-10>, <그림 5-14> 것으로 나타났다. 묶음 점을 네이프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한 비대칭 스타일을 하였다. <그림 5-23>

굵은 웨이브 형태도 롱, 미디움과 쇼트 등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모량과 모발 끝의 가벼움으로 과거의 풍성하고 화려한 느낌 보다는 자연스러움과 우아함이 돋보였다. 열 퍼머, 특수 퍼머 스타일의 유행 흐름이 반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2>, <그림 5-13>, <그림 5-15>, <그림 5-16>, <그림 5-17>, <그림 5-25>

층을 많이 준 인크리스 레이어에 디스커렉션 스타일 형태<그림 5-13>은 모발 끝의 가벼움을 살려 굵은 웨이브로 얼굴을 길어 보이게 하였다. 또한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 제품을 사용하여 가볍게 표현된 머리 끝에서 많은 움직임이 표현되었다. <그림 5-12>, <그림 5-15>, <그림 5-16>

<그림 5-19>는 과거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에서 볼 수 있었던 강한 움직임의 컬이 아니라, 특수퍼머를 이용한 굵은 웨이브 스타일로 자연스런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또 앞머리에 곡선형의 뱅을 내려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그림 5-18> 장신구는 늘어지는 귀걸이 형태와 더불어 팔찌, 손수건 등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그림 5-23>

원피스 형태의 푸른색 수영복도 비키니, 허리 부분이 강조된 호피문양 수영복 등으로 나타났고, 색깔도 전통적인 푸른색 수영복에서 레드 계열로 변

74 <http://www.tekim@mtstarnews.com>

하여 푸른색 수영복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2>, <그림 5-28>

(2) 메이크업

① 피부

피부표현은 인위적이기 보다는 한 듯, 안 한 듯 투명하고 얇게 연출하였고, T존 부위 등에 명암을 주어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강함보다는 여성스러운 우아함이 강조된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그림 5-7>

② 눈

눈썹 색은 헤어 칼라에 맞추고, 둥글게 그려 연출하였고<그림 5-22>, 검정 색보다는 다크 브라운 색상을<그림 5-15> 두께도 인위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의 눈썹 형태 그대로 표현하였다. <그림 5-7>, <그림 5-11>, <그림 5-15>

눈은 강한 아이라인보다는 라인을 연하게 그린 후,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강조하였다. 마스카라만으로도 눈이 크고 뚜렷하게 보이게 하였다. <그림 5-9>, <그림 5-11>, <그림 5-27> 색이 진하지 않은 오렌지,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넓게 펴 바르고 브라운 또는 포인트를 주는 색조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포인트는 색상을 거의 넣지 않은 화이트 등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그림 5-11>

③ 입술

입술도 인위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신 입술 라인을 살려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그림 5-7>, <그림 5-8>

립스틱은 핑크와 오렌지계열을 사용하였으며 입술 가운데 부분에만 펴이 들어간 립글로스를 발라주어 도톰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5-9>, <그림 5-11>, <그림 5-15>



<그림 5-6>
2000년 스트레이트



<그림 5-7>
2000년 투명 메이크업



<그림 5-8>
2000년 웨이브 포니테일



<그림 5-9>
2001년 탑 볼륨 강조 스트레이트



<그림 5-10>
2001년 쪽 머리 업스타일



<그림 5-11>
2002년 탑 강조 업스타일



<그림 5-12>
2003년 샤기 스타일 웨이브



<그림 5-13>
2004년 디스커백션 스타일



<그림 5-14>
2005년 볼륨 없는 업스타일



<그림 5-15>
2003년 색조화장



<그림 5-16>
2004년 샤기 커트 웨이브



<그림 5-17>
2005년 비대칭 굽은 웨이브



<그림 5-18>
2006년 뱅 업스타일



<그림 5-19>
2006년 아이론 웨이브



<그림 5-20>
2000년 곡선형 눈썹



<그림 5-21>
2002년 업스타일



<그림 5-22>
2003 내추럴 메이크업



<그림 5-23>
2006년 사이드 볼륨
비대칭스타일



<그림 5-24>
2001년 탑 강조
업스타일



<그림 5-25>
2006년 미디움 퍼머



<그림 5-26>
2000년 반 머리
스트레이트



<그림 5-27>
2000년 볼륨강조
업스타일



<그림 5-28>
2006년 허리선
강조 수영복

[2000 ~ 2006 미스 코리아 자료 사진] ⁷⁵

75 출처: 『한국일보』, 2006.8.5
『한국일보』, 2000.5.1
<http://misskorea.hankooki.com>, 자료검색일, 2006.9.4
<http://misskorea.hankooki.com>, 자료검색일, 2006.6.30
<http://news.yahoo.co.kr>, 자료검색일, 2006.9.4
<http://photo.hankooki.com>, 자료검색일, 2006.9.4
<http://kr.img.blog.yahoo.co.kr>, 자료검색일, 2006.9.4
<http://kr.blog.yahoo.com/kbs>, 자료검색일, 2007.04.12
한국일보(2006), 『50th 2006 Miss Korea Festival』

이상에서 살펴 본 1957년부터 2006년까지의 미스 코리아 변천사를 통해 본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당시의 유행경향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요약 정리하였다.

구분	1957년 ~ 1999년	1980년 ~ 1989년	1990년 ~ 1999년	2000년 이후
유행 헤어 스타일	- 강한 컬의 퍼머 유행 - 헵번 스타일의 픽시 커트 유행	- 다양한 룩트 개발로 퍼머 스타일 유행 - 스트레이트와 굽은 웨이브의 긴 머리 유행	- 로맨틱 보브 스타일 유행 - 코팅 퍼머, 블리치 유행 - 아이론 퍼머 다시 유행	- 디스커백션, 샹기 커트 스타일 유행 - 열을 이용한 특수 퍼머 스타일 유행
유행 메이크업	- 서양 영화배우들의 인위적인 메이크업 유행 - 육감적인 메이크업 유행	- 포인트 메이크업 유행 - 중반에는 내추럴 메이크업 유행	- 복고풍 메이크업이 리메이크 되어 유행 - 광택이 나는 메이크업 유행	- 투명 메이크업 유행 - 반짝이는 건강한 피부 선호
참조 사진				
				

<표 7> 1957년부터 2000년 이후 유행경향의 특성

구분	1957년 ~ 1979년	1980년 ~ 1989년	1990년 ~ 1999년	2000년 이후
미스 코리아 헤어 스타일	. 50년대-뱅 스타일 . 60년대-탑 사이드 부풀린 올림머리, 머쉬룸 스타일 . 70년대-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	. 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 유행 . 미디움 길이의 다양한 헤어 스타일 유행	. 굽은 웨이브 스타일 . 자연스런 볼륨의 올림머리 스타일 나타남	. 스트레이트, 굽은 웨이브, 올림머리 등 다양해짐 . 머리길이라도 롱, 미디움 쇼트로 다양해짐
미스 코리아 메이크업	. 인위적인 메이크업 . 피부는 두껍게, 눈은 짙게, 입술은 아웃라인으로 과장됨 . 붉은색 립스틱 사용	. 눈과 입술을 강조한 포인트 메이크업 유행 . 피부는 하얗게, 눈은 마스크라로 풍부하게, 립스틱은 오렌지 레드 사용 . 동양적 곡선형의 입술라인	. 내추럴 메이크업, 개성을 살리는 메이크업 . 피부는 피부톤에 맞게, 눈은 선명하게, 입술은 형태 그대로 표현	. 피부는 한뼘 안 한뼘 투명하고 얇게, 눈은 눈썹 형태 그대로, 입술은 립글로스로 도톰하게 표현
참조 사진				



<표 8> 1957년부터 2006년까지 미스 코리아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 특성

IV. 결 론

1. 연구 결과 요약

한국의 미용역사를 되짚어 볼 때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미의식 표현의 대명사로 대표되는 미스코리아에 대한 연구작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미스 코리아 변천사를 통해 각 시대별로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의 특징적 요소를 분석하고, 오늘날 유행 경향의 스타일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사진에 따르면, 큰 키의 서구적 미인을 모방하기 위해서 턱 부분을 과도하게 부풀려, 동양의 작은 여성의 키를 커 보이게 하고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였다. 이것은 시대별로 분석한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서구적 미인의 기준뿐만 아니라, 같은 부풀림의 헤어스타일에서도 조금씩 변형된 차이는 시대별 유행 경향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스타일은 가르마를 가르지 않고 양 쪽 귀 옆과 전두부에 백콧을 넣어 위로 빗어 올린 올림머리 스타일의 “방울머리”와 층을 전체적으로 한강한 퍼머 스타일의 “사자머리”가 대표적이었다. 1957년 ~ 1979년까지는 동양적 미인의 고전미 표현으로 우아함이 강조된 뱅 스타일과 하나로 빗어 올려 전체적인 윤곽의 균형을 살린 올림머리 스타일 또, 헤어 드라이어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굽은 웨이브 스타일을 하였다. 1980년 ~ 1989년까지의 특징은 칼라 TV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더욱 화려한 모습의 서구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꼬불꼬불 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은 착시현상으로 얼굴이 작아 보였다. 1990년 ~ 1999년까지는 사자머리 스타일은 계속 나타났지만, 70년대 후반과 80년대 보였던 강한 컬의 퍼머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은 변형되어 차분한 퍼머 스타일로 새로운 양상을 띠었다. 또한, 90년대 말이 되면서 60년대 보였던 올림머리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의 특징은 자연주의와 개성이 중요시 되면서 과거의 강한 컬의 형태는 사라지고, 스트레이트, 모발 끝이 가는 굽은 웨이브, 과장되지 않은 올림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둘째, 메이크업은 큰 눈과 선명한 눈매를 표현하기 위하여 길고, 강한 인위적인 메이크업이 주를 이루면서 눈과 입술이 강조되었다. 1957년부터 1989년까지는 영화 속의 메이크업 경향이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피부는 하얗게 눈은 마스카라를 사용하여 속눈썹을 길고 짙게 하였다. 입술은 동양적인 곡선형으로 본래 형태보다 아웃커브 라인으로 과장되게 하였다. 1990년부터 2000년 이후는 피부는 한 듯 안 한 듯 투명하고 얇게 하였으며, 눈은 인위적이기 보다는 자신의 눈썹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였고, 입술은 입술형태를 살려서 립글로스를 발라 도톰하고 촉촉하게 하였다.

덧붙여 코디네이션 특징도 자연적인 소재와 길게 늘어뜨린 큰 귀걸이 형태로 구분되었으며, 점점 크기나 형태가 대담해지고 손수건, 팔찌, 리본, 천 등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제한 사항으로는 물론 어렵게 미스 코리아 배출 경험이 있는 미용인의 인터뷰를 추가하였으나, 사실 많은 분들이 매스컴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번번이 인터뷰가 취소되었다. 오랜 경력과 현장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인터뷰가 더 많이 이루어졌더라면 더욱 풍부한 자료가 되어서 미용예술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역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후속 연구 방향으로는 복식 분야에서 드레스 형태도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컸음을 이해하여 라인이나 칼라를 중심으로,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본 연구보다 더 세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미스 코리아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 미용예술분야에서 미를 표현하는 기초 자료로 새로운 유행을 창출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적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곽형심 외(2003),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주)두산동아
- 국어국문학회(2004), 『밀레니엄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김기덕(1991), 『이바 업 스타일』, 도서출판 이바
- 김성희 외(1999), 『미스 코리아 34인의 뷰티 노하우』, 형신
- 김수정(2005), 『한국미용100년』, 동서교류
- 김영인(2004), 『한국여성의 색조화장』, 도서출판 국제
- 김용숙(1990), 『한국의 女俗事』, 민음사
- 김지희 외(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도서출판 경춘사
- 김춘득(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 김태길(1977), 『古典文學에 나타난 韓國人の 價値觀』, 일지사
- 높세울, 남영신 엮음(2003), 『ㅎ·ㄴ + 국어대사전』, 성안당
- 니콜 아브릴(2001), 『얼굴의 역사』, 작가정신
- 대부니 타운젠드(2000), 『미학입문』,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 두산동아 사서편집국(2004), 『동아 새 국어사전』, (주)두산동아
- 아모레 퍼시픽(舊 태평양)(2007),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홍보실』
- 움베르토 에코(2005), 『미의역사』, 열린책들
- 오병남(2003),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상태(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장징(2004), 『미녀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뿌리와 이파리
- 전선정 외(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청구문화사
- 정찬이(2006), 『HAIR up STYLE』, 현문사
- 정현진 외(2004), 『미용문화사』, 광문각
- 조용진(2001), 『우리 몸과 미술』, (주)사계절출판사
- 조용진(2003), 『얼굴, 한국인의 낮』 (주)사계절출판사
- 조지훈(1973), 『한국적 미의식의 구조를 위하여』, 일지사
- 타타르키비츠(1990), 『미학의 기본 개념사』, 미진사

한국미학회(1994), 『美學 第19권』

한국일보(2006), 『50th 2006 Miss Korea Festival』,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현대패션100년 편찬 위원회(2002), 『현대패션100년』, (주)교문사

[외국 문헌]

Edward Maeder(1987), 『Hollywood and history: costume design in film』,
New York: Thames and Hodson

Voltaire(1967), 『Dictionnaire Philosophique』, Paris, Garnier

[학위논문]

고충환(1997), 『얼굴 유형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필레(2004),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규(2004), 『한국여성의 미인얼굴과 평균얼굴의 생체계측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숙(1998), 『20세기한국과 서양의 여성화장문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영보(1991),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연희(2002), 『메이크업 색채와 이미지의 상황적 연출과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효정(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미영(2005), 『얼굴의 형태적 특성과 메이크업에 따른 얼굴 이미지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채문희(2006), 『얼굴유형과 머리모양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적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정(2005), 『얼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혜숙(2005), 『서양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 김신명숙(2001), 『왜 안티 미스 코리아인가』, 사회비평 통권 29호
- 김종택(1997), 『韓國人の 傳統的인 美人觀』,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여성문제연구소
- 남궁윤선 외(2005. 9), 『우리나라 미인대회를 통해 본 이상적 몸의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
- 박명진(2001. 4. 5), 『왜 안티 미스 코리아인가』, 사회비평 통권 29호, 2001 뉴스 피플, 『성형 붐』
- 박수진 외(2001), 『한국인 20대 여성 얼굴의 수치 및 감성구조 분석』, 한국감성 과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 이은창(1984. 12), 『韓國의 美人像』, 효성여자대학교 부설 여성문제연구소
- 조용진 외(1981), 『한국미인의 생체계측학적 연구』, 대한 성형학회지
- 조용진(1988), 『現代 韓國人の 美人觀』,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문
- 주간한국(2006. 8), 『한국의 美- 세계에 떨친 미스 코리아 50년』

[신문기사 자료]

- 서울신문, (1993.07.01), (1998.06.02)
- 일간스포츠, (1986.05.05), (1987.11.15), (1995.05.13), (1996.05.23), (1998.05.30), (2000.05.26), (2000.05.30), (2002.05.06)
- 조선일보, (1993.06.30), (1998.05.30)
- 주간여성, (1987.05.17), (1987.05.24), (1987.07.12), (1988.06.05), (1988.06.19)
- 중앙일보, (1987.06.02), (1992.05.18), (1993.05.25), (1993.06.28)
- 한겨레, (2002.04.23)
- 한국일보, (1957.05.01), (1957.05.15), (1957.05.18), (1958.05.26), (1959.12.03), (1960.06.09), (1973.05.14), (1976.05.12), (1986.05.21), (1994.05.17),

(1994.05.25), (1995.05.14), (1996.05.23), (1998.04.16), (2000.04.29),
(2000.05.01), (2001.05.04), (2006.08.05)

[인터넷 자료]

<http://hanja.naver.com/seach.naver?dic-here=hanja&query=%C>
<http://hanja.naver.com/search.naver?dic-here=hanja&query=%B>
<http://kbank.nate.com/qnaRead.do?TableCode=20&questioned=53>
<http://knank.nate.com/qnaRead.do?TableCode=20&questionID>
<http://kordic.empas.com/dicsearch/show.tsp?q=77407&f=B&v=43>
<http://kr.blog.yahoo.com/kbs>
<http://kr.img.blog.yahoo.co.kr>
<http://krdic.naver.com/detail.nhn?kind=korean&cocid=22036700>
<http://ksea.paran.com/sknow/queriew>
<http://misskorea.hankooki.com/award.htm>
<http://misskorea.hankooki.com/lpage/misskorea2003/200305/ms>
<http://news.yahoo.co.kr>
<http://photo.hankooki.com>
<http://www.sukji.hs.kr/school/home/subject/main>

[미스 코리아 배출 경험이 있는 미용인의 구술 자료]

정찬이 (미용경력 45년) 광주 광역시 북구 중흥동 656~2
라인뷰티샵, 라인뷰티 아카데미 경영

ABSTRACT

A Study on Miss Korea' s hair style and makeup From 1957 to 2006

Lee, Soun-Ok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Nowadays, we cannot assert that this is a criterion of the beauty. But, we are subject to accept what is familiar to us and to reject what is unfamiliar to us. The statistic data on the measurement of Miss Korea's face have showed that korean women's average attribute on their face made them Miss Korea, the representative envoy of Korean beauty, considering that their face length is 186.00mm close to the korean young women's average face length, 186.34mm. The objective beauty contest, Miss Korea contest gives us the visual and important data for understanding the trend of expressing a sense of beauty. In addition to that, we can know that the Miss korea's hair style and makeup have made a great effect on the puplic and have been changed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the trendy styl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at not only to understand the flow of a sense of beauty by putting the Miss korea's hair style and makeup into order systematically and but also to give someone this research on the combination of the hair style and the makeup in an art of beauty care as the fundamental research data of the expression of a sense of beauty by illuminating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the trendy style, through a study of the history of

transition on the Miss Korea beauty contests for selecting the Korea's representative beauty from 1957 to 2006 in an aspect of the cultural history on the beauty care.

For this research, I have sectioned the periodic view into the before 1980s-era, the 1980s-era, the 1990s-era and the after 2000s-era, considering an aspect that there was a great change on the flow of trendy style before and after the color telecast. I have referenced the books on the Miss Korea, many newspaper stories including some articles of The Hankook Ilbo, data of a public relation section of AMORE PACIFIC Inc., an interview with a beautician who has bred some women Miss Korea's, some books on beauty care, some preceded theses and an internet site (<http://misskorea.hankooki.com>) and I have attached some pictures on this research in this thesis.

I will summarize my research results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ome meaningful changes on trendy style of hair style and makeup according to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nd I have sectioned and analyzed them with the periodic view I mentioned above.

Second, there were some special features in Miss Korea's hair style. The one was the Up-Style(Some People nicknamed this style 『Bang-wool-meo-ri』 because of its shape.) to heighten her height. The other is was the strong permanent style(Some People nicknamed this style 『Sa-za-meo-ri』 because of its shape.) to lessen her face size relatively. There were some changes on wave-style by an age in spite of same wave-style.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Miss Korea's make-up are on the emphasis of make-up on eyes and lips. The trendy styles on make-up were the heavy and artificial make-up to express the vivid eye shape and have changed to the natural make-up to express the color sense and the feel of material after the 1990s-era.

Fourth, Miss Korea's coordination has been changed from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such as flowers to the weariness of long and big adornments

such as earrings to emphasize the brilliance and the elegance. According to being daring of the size and shape of adornments, the personal adornments such as handkerchief, bracelet, ribbon and cloth have been used to express her beauty.

I have intended to analyze and put the correlation between Miss Korea's hair style and make-up into order by era in an aspect of the cultural history on the beauty care to lay a historical foundation for some future research. I want this thesis to be a critical groundwork to create a new trendy style in the current and future art of beauty care through understanding the fact that Miss Korea's hair style and make-up have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a trendy style of the times.